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7789

2009년 2월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전공)학위논문

중·고등학생들의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 조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양 정 원

중·고등학생들의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 조사

A Study on Secondary and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Hanbok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양 정 원

중·고등학생들의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 조사

指導敎授　정 옥 임

이 논문을 기술·가정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양　　정　　원

양정원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4
A. 한복의 정의 및 특색 ····· 4
B. 한복의 변천사 ····· 6
1. 삼국시대 이전의 옷차림 ····· 6
2. 삼국시대 복식 ····· 6
3. 통일신라 · 발해시대 복식 ····· 13
4. 고려시대 복식 ····· 16
5. 조선시대 복식 ····· 18
6. 개화기시대 복식 ····· 22
C. 한복의 기본구조 ····· 23
1. 저고리 ····· 24
2. 조끼 ····· 25
3. 치마 ····· 26
4. 바지 ····· 26
5. 마고자 ····· 27
6. 두루마기 ····· 28

III. 중 ·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내용 ····· 29
A. 가정과 교과내용 ····· 29
B. 가정과에서의 의생활영역 ····· 30
C. 가정과 의생활 영역에서의 한복영역 ····· 32

Ⅳ. 연구방법 ····· 35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35
B. 측정도구 ····· 35
1. 설문지 구성 ····· 35
2. 설문지 개발 ····· 36
3. 설문지 타당도 ····· 36
4. 설문지 신뢰도 ····· 38
5. 용어정의 ····· 39
C. 자료 분석 ····· 40
D. 연구의 한계점 ····· 40

Ⅴ. 연구결과 및 해석 ····· 41
A.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41
B. 한복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정도 ····· 43
C. 한복에 대한 이미지와 의식정도 ····· 60
D. 한복학습 유무와 한복에 대한 인식 ····· 62

Ⅵ. 결론 및 제언 ····· 64

[참고문헌] ····· 67
[부록] ····· 69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유고 착용 여인상(무용총벽화)>
<그림 Ⅱ-2 수산리 벽화>
<그림 Ⅱ-3 유· 고· 상· 포, 무용총 무용도>
<그림 Ⅱ-4 장유 착용 인물상(무용총 벽화)>
<그림 Ⅱ-5 건귁(쌍영총 벽화)>
<그림 Ⅱ-6 책(수산리 벽화)>
<그림 Ⅱ-7 백제국사도>
<그림 Ⅱ-8 당 이현묘 벽화의 신라사절>
<그림 Ⅱ-9 표(裱) 착용 당도용>
<그림 Ⅱ-10 왕비와 시녀, 관경서분변상도>
<그림 Ⅱ-11 여자 치마 저고리, 방배동 출토 목우상>
<그림 Ⅱ-12 초기 저고리, 156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Ⅱ-13 당코깃 저고리(중기),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Ⅱ-14 삼회장 저고리, 1900-1910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Ⅱ-15 저고리의 형태와 명칭>
<그림 Ⅱ-16 조끼의 형태와 명칭>
<그림 Ⅱ-17 치마의 형태와 명칭>
<그림 Ⅱ-18 바지의 형태와 명칭>
<그림 Ⅱ-19 마고자의 형태와 명칭>
<그림 Ⅱ-20 두루마기의 형태와 명칭>

표 목 차

<표 Ⅲ-1> 가정교과 내용 체계
<표 Ⅲ-2> 가정과에서의 의생활 내용체계
<표 Ⅲ-3> 출판사별 의생활 영역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Ⅲ-4> 교과서별 비교표
<표 Ⅳ-1> 한복 이미지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결과
<표 Ⅳ-2> 한복에 대한 의식정도 확인요인분석 결과
<표 Ⅳ-3> 한복 이미지에 대한 척도의 하위영역 문항구성과 신뢰도
<표 Ⅳ-4> 한복에 대한 의식정도 척도의 하위영역 문항구성과 신뢰도
<표 Ⅴ-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Ⅴ-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한복 소유가족 다중응답분석
<표 Ⅴ-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한복을 좋아하는 가족 다중응답분석
<표 Ⅴ-4> 일반적인 특성과 부모님의 한복착용 시기와의 비교
<표 Ⅴ-5> 일반적인 특성과 적절한 한복착용 시기와의 비교
<표 Ⅴ-6>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 비교
<표 Ⅴ-7>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을 입고 싶다고 느낀 시기와의 비교
<표 Ⅴ-8>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에 대한 이미지와의 비교
<표 Ⅴ-9>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에 대한 관심정도와의 비교
<표 Ⅴ-10>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구성 중 특징 부위와의 비교
<표 Ⅴ-11> 일반적인 특성과 우리옷에 대한 의견 비교
<표 Ⅴ-12>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착용에 대한 생각과의 비교
<표 Ⅴ-13>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와의 비교
<표 Ⅴ-14>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 착용시 불편한 점과의 비교
<표 Ⅴ-15>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구매의사 여부와의 비교
<표 Ⅴ-16>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구매의사가 없는 이유와의 비교
<표 Ⅴ-17>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에 대한 변화 의견과의 비교

<표 Ⅴ-18>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학습 유무와의 비교
<표 Ⅴ-19>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학습 경로와의 비교
<표 Ⅴ-20>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학습 전수대상과의 비교
<표 Ⅴ-21>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학습 방법과의 비교
<표 Ⅴ-22>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습득 후 습득내용과의 비교
<표 Ⅴ-23>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수업의 도움정도와의 비교
<표 Ⅴ-24>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와의 비교
<표 Ⅴ-25>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에 대한 수업량의 적절함과의 비교
<표 Ⅴ-26>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명칭의 인지도와의 비교
<표 Ⅴ-27>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 입는 순서에 대한 인지도와의 비교
<표 Ⅴ-28>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착용에 대한 인지도와의 비교
<표 Ⅴ-29> 한복에 대한 이미지의 하위요인 비교
<표 Ⅴ-30> 한복에 대한 의식정도 비교
<표 Ⅴ-31> 한복학습 유무와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 비교
<표 Ⅴ-32> 한복학습 유무와 우리옷에 대한 의견 비교
<표 Ⅴ-33> 한복학습 유무와 한복구매의사 여부와의 비교

ABSTRACT

A Study on Secondary and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Hanbok

Jeong - Won Yang
Advisor : prof. Ok-Im Jung
Major in Technology and Home-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secondary and high school students' interest in and perceptions of Hanbok and to analyse current school education on Hanbok and its effectiveness. For the study, we interviewed 880 students of grade 2 of 4 secondary schools and grade 1 of 4 high schools in urban area(Seoul and Gwangju) and rural area(Jeonnam and Jeonbuk) from September 18 to October 4. 2008. And we used 865 copies of answer sheets(98.30%) except 15 whose answers were not sincere for a final analysis.

The data used for the study were analysed with a use of SPSS 12.0 for which a frequency analysis, a multi-response analysi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 confidence analysis, Pearson's χ^2 test, Fisher's exact test, and a t-test were used. However, family composition, living standard, monthly income, and parents' occupation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es

because there was a risk to violate privac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mmarizes suggestions and education meanings in respect to Hanbok wearing;

First, in respect to general interest in Hanbok,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Female adults had higher rate of wearing Hanok and they usually wore it on big holidays and wedding ceremonies. Wearing Hanok which is one of our traditional cultures but disappearing is a move to inherit our culture and schools and society should encourage them to wear it on special occasions such as a coming-of-age ceremony or big holidays. For example, in addition to regular class at schools, students clubs on manners and manner school programs for community people should be developed for its activation, through which we can promote further development and inheritance of our culture.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ng images on Hanbok, all the subjects answered that it had high in aestheticism but low function and activity. In general, the means of girl students had higher interests in it than boy students. And the subjects in urban area had relatively higher interest in Hanbok than those in rural area. The main reasons they did not wear it were: it is difficult to move in it, there was no chance to wear it and no Hanbok to wear. These days, Hanbok has been reformed for easy wearing, but easier and more comfortable materials of Hanbok should be developed to lessen discomfort in wearing.

Third, in respect to Hanbok education, girl students gave positive answers on it in comparison with boy student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knowledge on and interest in Hanbok between

those who learned about Hanbok and those who did not. For students did not realize its necessity as they were not interested in our traditional costume and education was boring in examination oriented curriculum though education was given to them. And there was differences according to regions. Lack of teachers and students, circulatory teaching due to incorporation and closure of schools and lack of teaching materials may affect education on Hanbok. Hanbok education can have higher effectiveness when it is given through practice, but a focus is usually given on a theory at schools, which may deteriorate learning effect. To overcome the problem, teache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development of materials and class based on opinions presented by students in an appendix.

Ⅰ. 서 론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의복이라는 것은 단지 추위를 피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색과 그 지역 문화와 사람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 중에 하나가 의복이 아닐까 한다.

한복은 우리 고유의 민족 문화를 상징해 주고 있는 전통의상으로서 우리 조상들의 얼과 슬기로운 지혜와 정성이 깃들어 있으며 우리의 삶과 정서가 담겨 있는 옷이다(오운자, 1998).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의상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특히 젊은 층에게 있어서는 다소 생소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무리 한복이 아름답다고는 하나 그것은 실제로 착용하지 않으면 죽은 의상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가까운 나라인 베트남, 중국, 일본을 보자.

먼저 베트남의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는 품이 넉넉한 바지와 길이가 긴 상의로 되어 있다. 중국의 전통복을 베트남의 풍토와 민족성에 동화시켜서 만든 것으로, 상의는 중국복의 영향을 받아 옆이 길게 트여 있고(슬릿), 깃은 차이니스 칼라로 되어 있다. 유행에 따라서 슬릿의 깊이나 칼라의 높이가 달라지며, 옷감 · 무늬 · 빛깔도 다양하다. 원래는 상류계급의 의복이었으나 평상복 · 예장용으로 일반화되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겨우 꺼내 입는 우리네 한복과는 달리 요즘 베트남에서도 여전히 애용되고 있다. 물론 실용성과 패션을 고려해 개량화 되기는 했지만 기본 선은 고스란히 살아 있다.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파오는 청대에 형성된 중국의 전통의상으로서 원래 남녀의상 모두를 이르는 말이지만 보통 원피스 형태의 여성의복을 지칭한다. 예전의 청나라때 고위 관직들이 입던 의상이 1911년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서양의 복식과 융화를 이루면서 지금의 옷으로 발전되었다.

일본의 기모노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겨드랑이를 꿰맨 간단한

것이었지만, 염색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형태와 색, 무늬 등이 바뀌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되었다. 그러나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기모노는 두꺼워서 여름에는 유카타를 많이 입는다. 일본도 예전에는 이렇지가 않았다. 하지만 성인식과 마츠리(축제)를 통해 여성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전통의상을 입는 모습을 우리는 부럽게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신분에 따른 의상의 차이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한복... 실생활에서의 우리의 한복은 그렇지가 못하다. 화려한 색상과 소재는 훌륭하지만 착용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명절이나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만 입는다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벌의 민족의상에는 영토와 사회집단의 깊은 뿌리가 있고 민족적 종족을 식별해 주는 기능은 민족내의 관계와 가치기준과도 합치된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며 시대의 보편적 양식을 지니면서 습득되고 전승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의 특성에 부합되는 문화의 한 요소인(정옥임, 2006) 의복은 인간의 생활 감정 등의 내적 특성을 반영하여 표현되며 이것이 전통으로 계승된다. 이러한 한복에는 타 문화와 차별화된 철학이 내재된 복식 문화가 전통 문화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다.

똑같이 인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복이라도 나라마다 그 구성상 형태가 다름은, 물론 기후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나라 고유의 생활문화 그 속에 깃든 어떤 철학적 상징도 같이 내재되어 있어 민족복은 종족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정옥임, 2008).

그런데 오늘날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를 상징해 주는 전통 문화 중의 한 부분인 한복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변화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 일상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이를 교육해야 할 학교 교육에서도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단지 문화 속에 의복으로서 의미만 잔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한복을 일상복으로 정착시키려는 분위기와 우리 것을 찾으려는 정서가 확산되면서 우리의 고유의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오운자, 1998), 한복과 일상생활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좁히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광복 이후 제시된 한복 개량안은 한복의 기본형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변형시킨 것과, 기본형 자체를 변형하여 양복의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한 것, 양복에 한복의 요소를 도입시킨 것의 세 종류였다. 그러나 결국 일상복으로 한복을 정착시키려는 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한복 고유의 미를 손상시키는 역효과를 자아내었다.

하지만 몇몇 서양복 디자이너들은 한복이 갖는 미적인 특성을 서양복에 도입시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에 이르렀고(최선형, 정인희, 강순제, 1998), 문화관광부는 96년 3월, 21세기 국가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우리 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상물 선정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문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CI(Cultural Identity)상징물로써 가장 지지를 받은 것이 한복이었다(고정민, 채금석, 1999).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1996년 12월 4일 매월 첫째 토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선포하여 우리 옷 입기 캠페인을 통하여 한복의 활성화와 의식 향상을 시도하였으나 이마저도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 복식으로서의 한복에 대한 관심은 결코 경감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관심이 학문으로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첫 시도로서, 현 중· 고등학생들의 한복에 대한 인식을 검토해 보고,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복 교육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의견은 궁극적으로는 한복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수업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론적 고찰과 이를 토대로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한복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인 특성 간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한복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인 특성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한복에 대한 의식은 일반적인 특성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한복 학습의 유무와 한복에 대한 인식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A. 한복의 정의 및 특색

한복[韓服]이란 한민족(韓民族)의 고유한 의복을 말하는 것으로, 당(唐) · 원(元) · 명대(明代)의 관복제도를 받아들여 한국 고유의 복식과 조화시키면서 발전시킨 것으로, 조선옷이라고도 한다.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아름다우며, 특히 여자 옷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가 어울려 옷차림이 단정하고 아담하다. 예복과 평상복으로 나뉘어 있으며 남녀별 성인과 어린이용, 계절별로 나뉜다.[1)]

한복은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와 기후풍토에 가장 알맞게 정착된 고유의상으로, 한국이라는 특정한 지역 안에서 한국인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착용해온 한국의 전통복식을 의미한다. 한복은 한국이라는 지역성에 의하여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한국의 특유한 고유복식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유래와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옷일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정성이 깃들어 있는 뛰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옷이다(오운자, 1998).

우리의 한복이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 받고 있는 것도 고유 의복과 외래 의복이 함께 존재하는 이중 구조 속에서 한복의 기본적인 형태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한복의 특색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한복은 구성상으로 평면 구성에 속하나 남방 열대형은 아니며, 형태상으로는 북방 한대형에 속하므로 양쪽이 절충된 온대형이라 할 수 있다. 평면적인 옷감을 직선적으로 재단하고 이를 꿰매어 평면적인 옷을 만들며, 이것을 다시 입체적인 인체에 맞도록 남은 부분을 주름잡거나 접어서 끈으로 고정시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입으면 입체감이 형성되어 부드럽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두 번째로 한복의 아름다움은 외관으로 보이는 선의 흐름과 옷감이 지닌 색채의 조

1) 두산백과사전

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추녀의 곡선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있는 듯한 저고리의 배선과 넘실거리는 물결과 같은 도련의 곡선은 동정의 예리한 직선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속옷을 겹겹이 입은 위로 치마를 입어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윤곽선은 모든 것을 감싸주는 듯한 너그러움을 느끼게 해준다. 여기에 옷을 입고 움직일 때에 생기는 동적인 선의 아름다움까지 가미하면 무수한 선의 조화는 세계적인 호평을 받을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세 번째로 한복의 재질면에서는 4계절이 뚜렷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옷감을 계절 감각에 충분히 살려 줌으로써, 여름에는 한 겹으로 지은 홑옷, 겨울에는 솜을 두어 지은 핫옷, 봄과 가을에는 솜을 두지 않고 안팎감을 맞추어 지은 겹옷을 입어서 슬기로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복감은 무늬와 질감이 우리 옷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인체의 아름다움이 옷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형태의 변화가 적은 한복의 개성을 잘 살려 주고 있다.(이주원, 1993)

네 번째 색채면에 있어서 우리민족은 백의민족이라 불릴 만큼 흰색을 좋아한다. 여기에는 단일 민족의 청렴 결백함과 긍정적이고 순수한 성격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비되는 강렬한 원색의 옷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5색을 기본으로 하여 색채의 독특한 조화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2)]

다섯째 활동적인 면에서 한복은 옷 자체에 여유분을 두어 직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옷에서의 압박감이 없이 넉넉하여 편안할 뿐만 아니라 상하로 분리되어 있고 전개형으로 되어 있어 입고 벗기에 매우 편하다. 즉, 저고리의 넓은 소매와 여유 있는 폼, 치마와 바지의 풍성함을 볼 때 인체가 옷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자세를 취하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위생적인 면에서의 한복은 보온의 역할 뿐만 아니라 방한, 방서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겨울에는 온몸을 감싸고 여러 겹의 속옷을 겹쳐 입어 보온의 효과가 크고, 특히 솜을 두어 지은 핫온은 방한이 충분하다.(이주원, 1993)

---

2) 한복이야기 http://gongmo.edu-i.org/2000/807/

B. 한복의 변천사

1. 삼국시대 이전의 옷차림

원시시대의 옷차림은 소박한 최소한의 의상으로 구석기시대 초기에는 짐승의 털가죽 · 풀 · 나무껍질 등으로 몸을 가리다가, 신석기시대에는 원시적인 베틀을 이용하여 천을 짜내어 옷을 지어 입었다. 그러다 부족국가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민족 옷차림의 기본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옷차림에서 계층적 차이와 남녀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남자의 기본 옷차림은 바지 · 저고리 · 겉옷 등으로 이루어지고, 여자의 기본 옷차림은 저고리 · 치마 · 겉옷 등으로 이루어졌다. 저고리 · 겉옷은 앞을 여미는 곧은 깃형이 기본이고 둥근깃형도 있었으며, 바지는 남녀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3)]

2. 삼국시대 복식

삼국시대에는 스키타이계 복식문화의 바탕 위에 중국문화의 영향과, 고구려 · 백제 · 고신라 · 가야의 여러 국가들이 서로 연관되어 독특한 복식문화를 형성하여 우리 복식의 기본구조를 이루었으며, 이것은 후대 복식의 근간이 되었다.

a. 고구려 복식

고구려인들의 의복은 스키타이계 복장인 유(襦) · 고(袴) · 장유(長襦) 외에 중국계 복장인 상(裳)과 포(袍) 등이 있다.[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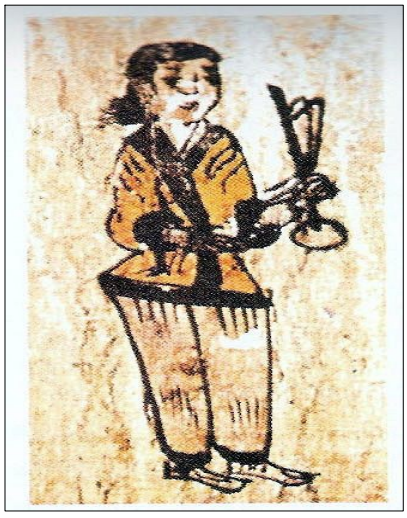
3) 차용준, 「전통문화의 이해 - 전 7권 중 제2권 전통복식·음식·주거문화편」 전주대학교 출판부, p.51
4)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30

(1) 유(襦: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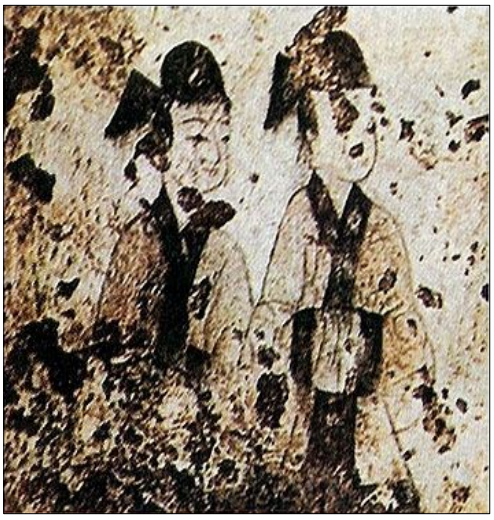
저고리는 웃옷인 저고리로[5] 고구려 · 백제 · 신라가 거의 같은 형태로, 기본형에 있어서는 남녀가 서로 비슷하지만 선(襈)에서 차이가 있다.[6] 전형적인 스키타이계 복장의 하나인 고구려 유(襦)는 원래 좌임이며 소매통이 좁은 착수(그림 Ⅱ-1)였으나 중국복식의 영향으로 우임의 소매통이 넓은 광수(그림 Ⅱ-2)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볼 수 있는 유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전개교임형(前開交衽形)에 길이는 엉덩이를 가릴 만큼 길며, 허리에 띠를 두르고, 깃과 섶 · 끝동 등에 선(襈)이 가해져 있다. 소매의 모양은 소매통이 좁고 손목까지 오는 통수(筒袖)와 소매통이 넓고 긴 대수(大袖)로 나눌 수 있다.[7]



<그림 Ⅱ-1 유고 착용 여인상(무용총벽화)>
-《한국복식문화사(1996), p12》



<그림 Ⅱ-2 수산리 벽화>
-《한국복식문화사(1996), p34》

(2) 고(袴:바지)

고는 바지로 남녀가 같이 입었으며 말을 타는데 적합하고 방한에 좋은 실용적인 형태였다.[8] 처음에는 바지통이 좁은(細袴) 형태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착용자의 신분과

5)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복식디자인」 대한교과서, 2006 p16
6) 안명숙, 김용서(1996), 「한국복식사」 교문사, p20
7) 유희경, 김문자(1998), 전게서, p35

용도에 따라 다양한 폭과 형태로 변화하였다. 바지는 용도에 따라서 그 폭과 길이가 달라, 궁고(窮袴)는 폭이 좁은 오늘날의 양복바지와 같은 것이었으며, 대구고(大口袴)는 지금의 우리 바지와 같이 폭이 넓은 형태이고, 곤(褌)은 가랑이가 짧은 것으로 오늘날의 여름 '잠방이'와 같은 것이었다. 궁고는 하류층의 바지이며, 대구고는 통이 넓은 형태로서 귀족계급의 하의였다.[9] 고분벽화에서 보면 남녀 모두 바지를 기본 복식으로 하고 있는데 무용총 주실우벽 벽화인 무용도에는 상(裳) 밑으로 속바지를 입은 모습(그림 Ⅱ-3)을 볼 수 있다.[10]

(3) 장유(長襦)

장유의 착용 모습은 고구려 고분벽화(그림 Ⅱ-4)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중국식의 포와는 달리 길이가 속에 입은 바지와 치마가 보이도록 그다지 길지 않고 폭도 그리 넓지 않아 우리의 '유'의 형태가 길이만 길어진 양식을 하고 있다.[11]

(4) 상(裳:치마) · 군(裙)

치마는 주로 여인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상(裳)이라 일컬었으며(그림 Ⅱ-4), 치마 중에서도 주름이 많이 잡힌 것은 군(裙)이라고 하였다.(그림 Ⅱ-5)[12] 일반적으로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땅에 끌릴 정도였으며, 신분이 높을수록 길이가 길었다.[13]

(5) 포(袍:두루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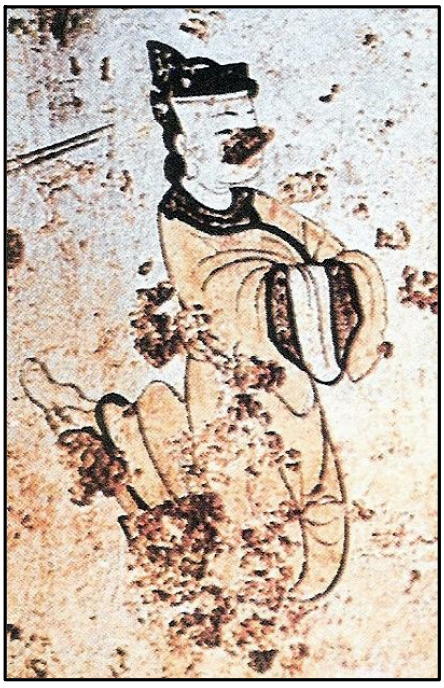
포(袍)는 ≪석명(釋名)≫에 "포는 남자가 입었는데, 아래로 길게 늘어져 발등을 덮고 안옷을 감싸는 옷이다."라고 하였다.[14] 즉 포는 저고리와 바지 또는 치마 위에 착용하

8) 교육인적자원부(2006), 상게서, p16
9) 안명숙, 김용서(1996), 전게서, p25
10) 문화관광부(2001), 「우리옷 이천년」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p14
11) 유희경, 김문자(1998), 전게서, p36
12) 김영숙, 김명숙(1999), 「한국복식사」 청주대학교 출판부, p 76
13) 안명숙, 김용서(1996), 전게서, p24
14) 유희경, 김문자(1998), 상게서, p36

<그림 Ⅱ-3 유·고·상·포, 무용총 무용도>
-《우리옷 이천년(2001), p13》

<그림Ⅱ-5 건귁(쌍영총 벽화)>
-《한국복식문화사(1996), p36》

<그림 Ⅱ-4 장유 착용 인물상(무용총 벽화)>
-《한국복식문화사(1996), p14》



<그림 Ⅱ-6 책(수산리 벽화)>
-《한국복식문화사(1996), p34》

는 두루마기로서 고대 사회의 삼국에서 모두 통용되었다. 의례용과 방한용의 목적으로 착용하였으나 의례적인 의의가 더욱 컸고,[15] 고구려 관계 고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고분벽화를 통해 포를 착용한 인물이 있어 그 존재를 알리고 있다. 벽화에 보이는 포의 형태(그림 Ⅱ-6)는 소매가 넓고 길어 손등을 덮는 전형적인 중국식 포임을 알 수 있다.[16] 이같이 포(袍)는 높은 신분의 귀인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착용하였는데 이 포는 방한용 뿐만 아니라 의례용으로도 입었다. 평민들은 소매 좁은 포를 입었으나 귀인들은 소매 폭이 넓은 포를 입었으며 귀족과 평민의 신분차이가 소매의 넓이와 직물의 재료, 선 등에서 나타나 있다.[17] 또한 일반적으로 옷고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를 매었고, 깃은 곧고, 섶은 겹치도록 옷을 여몄으며(直領交衽式), 선을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깃 · 도련 · 소매 끝에까지 드리웠다.[18]

b. 백제 복식

(1) 유(襦)

상의인 유와 같은 형태에 대한 것은 주로 '복삼(復衫)'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유의 일반적인 형태와 비슷한 모양일 것이다.

(2) 고(袴)

백제의 바지에 대한 기록은 왕의 것으로, '청금고(靑錦袴)' 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통이 넓은 푸른색 금직의 화려한 바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백제국사도(그림 Ⅱ-7)의 바지를 보면 통이 넓고

<그림 Ⅱ-7 백제국사도>
-《우리옷 이천년(2001), p20》

15) 교육인적자원부(2006), 전게서, p17
16) 유희경, 김문자(1998), 상게서, p36
17) 김영숙, 김명숙(1999), 전게서, p78
18) 안명숙, 김용서(1996), 전게서, p26

밑단에 선(襈)을 두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들에 나타난 관고 착용 방법인 밑을 졸라매는 방식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3) 장유(長襦)

장유는 '포'류에 속하는 것으로 유와 포 사이의 중간 길이로 보인다.

(4) 상(裳)

백제의 치마는 기록이 없으나 복장이 고구려와 동일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여인들은 고(袴) 위에 의례적인 경우에는 상을 착용했으리라 본다.

(5) 포(袍)

《구당서》 백제조에 "왕은 대수자포(大袖紫袍)를 착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에서도 포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고, 그 형태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소매가 큰 중국식 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19]

c. 고신라 복식

신라의 복식은 통일 후 당의 복식이 들어오기 전까지 고구려, 백제와 비슷하며,[20] 남녀가 모두 신분의 귀천이 없이 포를 착용하였는데 귀족층은 소매가 넓은 활수포를, 평민은 소매가 좁은 착수포를 착용하였다.[21]

(1) 유(襦)

유를 '우티, 위해(尉解)'라고 하였다.

---

19) 유희경, 김문자(1998), 전게서, p46~47
20) 김영숙, 김명숙(1999), 전게서, p91
21) 조오순, 박혜원, 「복식과 문화」 창원대학교 출판부, p26

(2) 고(袴)

고를 '가반(柯半)'이라 하여 남녀 모두 착용하였으며 여자는 바지위에 의례용으로 치마를 덧입었다.[22]

(3) 장유(長襦)

《당서》 동이전 신라조에는 "부녀자는 '장유'를 착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복은 대개 고구려 · 백제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고신라에서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형태의 장유를 착용했을 것으로 본다.

(4) 상(裳)

《삼국사기》 문무왕조에 나오는 "금군(錦裙)을 주고 꿈을 샀다"는 문명왕후 설화는 고신라에서 비단치마가 착용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5) 포(袍)

고신라에 있어서는 《삼국유사》에 법흥왕의 '방포(方袍)에 관한 기록이 있어 삼국 모두 포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d. 가야복식

가야의 의복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능고(綾袴)'라는 기록이 있고, 또한 '금수(錦繡)' · '능라(綾羅)'라는 직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미 가야에서도 화려한 의복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타 관모나 장신구류로 미루어 보아 그 대부분은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고신라와 같은 유 · 장유 · 고 · 상 · 포 등을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23]

---

22) 김영숙, 김명숙(1999), 전게서, p93
23) 유희경, 김문자(1998), 전게서, p58~p72

3. 통일신라 · 발해복식

a. 통일신라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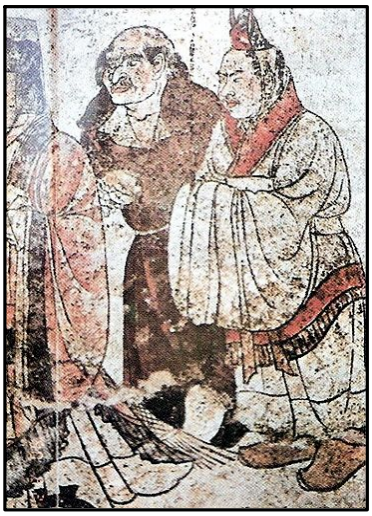
이 시기의 복식에 관한 유물은 거의 없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42대 흥덕왕 복식금령에 의해서 그 당시의 복식을 재구성 할 수 있다. 고유복식의 기본적인 구조로 상의는 저고리로서 직령교임제이고 좁은 소매가 달려 있으며 대를 둘렀고, 섶 · 도련 · 깃 · 소매 끝에 선을 대었다. 하의는 바지로서 치마보다 활동이 편하도록 가랑이가 따로 떨어진 형태였다.

통일신라 시대의 복식은 대체로 삼국시대와 유사하나, 무열왕 · 문무왕 이래 친당정책이 복식에도 영향을 미쳐 삼국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복식이 등장하는데, 의복으로는 단령(團領) · 반비(半臂) · 배당(褙襠) · 그리고 표(裱)등이 생겨났다.[24]

(1) 남자복식

(a) 표의(表衣)

표의는 가장 겉에 입는 옷으로 황성동 고분과 용강동 고분 출토 인문토용에 보면 단령포(團領袍) 형태(그림 Ⅱ-8)가 대부분인데, 당 이현묘 벽화에 보면 우리 고유의 장유 형태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8 당 이현묘 벽화의 신라사절>
-《한국복식문화사(1996), p84》

(b) 내의(內衣)

내의는 겉옷 속에 입는 옷으로 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고구려 고분벽화의 유나 장

24) 안명숙, 김용서(1996), 전게서, p41

유 속에 보이는 둥근 깃의 내의(그림 Ⅱ-5)와 같은 종류로 추측되며, 특히 이것은 내의라 하더라도 밖으로 보이는 부위가 있으므로 고급 비단류를 사용했으리라 생각된다.

(c) 고(袴)

고를 신라에서는 가반(柯半)이라 하였으며, 벽화인물도에서 본 것과 같이 통이 넓은 관고(寬袴)와 통이 좁은 세고(細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여자복식

(a) 표의(表衣)

여자들도 의례적인 경우에는 표의를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b) 내의(內衣)

여자들이 단의나 표의 속에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c) 단의(短衣)

단의는 여인 전용으로 유(襦)에 속하나, 치마를 유 위에 입게 되면서 유의 길이가 다소 짧아져 단의라 한 것으로 보인다.

(d) 배당(褙襠)

배자의 일종으로 반비와 같은 계통이라 하겠는데, 반비와 달리 소매가 없다. 배당은 여인 전용으로 평인녀에게는 착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e) 고(袴)

여자도 평시에는 고만을 입었고, 상은 의례용으로 그 위에 덧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f) 상(裳)

표상은 겉에 입는 것으로 치마허리가 있으며, 삼국시대의 치마와는 달리 주름이 치마단까지 잡히지 않고 현대 치마와 같이 위에만 잡혀 있다. 내상은 항상 속에만 입는 상이 아니고, 상을 두 개 입을 때 속에 입었기 때문에 내상이라고 하였다.

(g) 요반(褭攀)

요반은 치마허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단의 위에 입은 상의 허리로서 겉으로 드러나므로 매우 좋은 비단을 썼을 것이다.

(h) 표(裱)

표는 당제에서 온 것으로 영포(그림 Ⅱ-9)를 말하는 것으로,[25] 여인들이 목 뒤에서 가슴 앞으로 길게 드리운 것으로 일종의 '목도리'이다. 평민계층의 여인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26]

<그림 Ⅱ-9 표(裱) 착용 당도용>
-《한국복식문화사(1996), p90》

b. 발해복식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이므로 고구려 복식의 바탕위에 당의 복식제도를 받아들여 주로 관복으로 사용했으리라 생각된다.

(1) 남자복식

주로 복두를 쓰고 단령포를 착용하고 있는데, 단령포는 깃이 밭아서 목둘레에서는 속에 입은 옷이 보이지 않으나 옆트임을 통해 포 안에 중단류의 내의와 바지를 착용한

25) 유희경, 김문자(1998), 전게서, p87~p90
26) 안명숙, 김용서(1996), 전게서, p47

모습이 보인다. 소매는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으며, 옷자락은 발등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다.

(2) 여자복식

귀부인들은 밑에 유군을 입고 그 위에 대수포(大袖袍)와 반비 계통을 입고 또 표(褾)를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이는 당시 당의 부인 의복과 같은 형태였으리라 생각된다.[27]

4. 고려시대복식

고려의 복식제도는 그 변천과정으로 보아 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 · 중기에는 우리 복식 위에 당제 · 송제 등의 복식이 영향을 준 시기이며, 후기에는 원에 복종함으로써 몽고족 복식의 영향을 준 시기이며, 후기에는 원에 복종함으로써 몽고족 복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말기에 와서는 원의 쇠망과 더불어 신흥의 명의 제도를 본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배자인 관인계급에 있어서의 제도상 변천에 불과한 것이었고, 피지배계급인 서민층에 있어서는 상대사회의 복식과 같은 우리 고유의 복식을 그대로 답습하였다.[28]

a. 남자복식

(1) 왕복

왕의 복식으로는 제복(祭服), 조복(朝服), 공복(公服), 상복(常服), 연복(燕服)이 있는데 제복은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임금의 성혼, 즉위책봉, 하례 등의 예식 때 등의 특수 의식에 입는 법복이다. 조복은 왕이 백관과 사신을 접견할 때 착용한 복장이며, 공복은 왕이 중국의 사신을 접견할 때 착용한다. 상복은 평상시 일을 할 때 착용하는 복

27) 유희경, 김문자(1998), 전게서, p93~94
28) 안명숙, 김용서(1996), 전게서, p55

장이고, 연복은 왕이 집무에서 벗어났을 때의 차림을 말한다.

(2) 백관복

왕의 복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복, 조복, 공복, 상복이 있다.[29]

(3) 민서복 · 편복

기본복식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소매가 좀 더 좁아졌다.

b. 여자복식

통일신라시대의 복식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으며, 일부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 · 가미한 것이었다.[30]

(1) 왕비복

색이 홍색이며 그림을 그리고 수를 놓았고 서민은 하지 못했다는 『고려도경』의 기록에 의거하여 불화(그림 Ⅱ-10)의 그림을 왕비복으로 추정하였다.[31]

<그림 Ⅱ-10 왕비와 시녀, 관경서분변상도>
-《우리옷 이천년(2001),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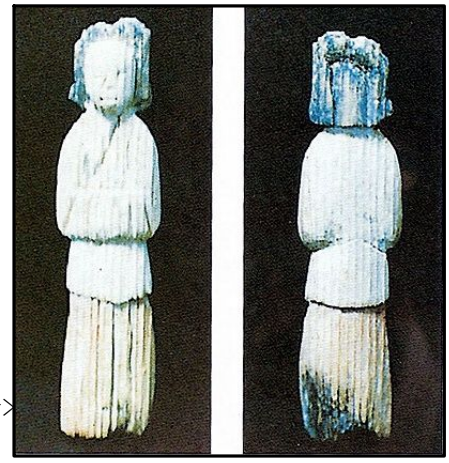
29) 김영숙, 김명숙(1999), 전게서, p117~p118
30) 유희경, 김문자(1998), 전게서, p156
31) 문화관광부(2001), 전개서, p52

(2) 귀부녀복

고려시대 귀부녀들의 의복은 통일신라기의 의복을 그대로 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32]

(3) 서민복

삼국시대 기본 복식인 상(裳)과 유(襦)를 계속 입어 치마 저고리(그림 Ⅱ-11)가 되었다.
치마 저고리란 명칭은 고려 말에 생긴 용어이다.[33]



<그림 Ⅱ-11 여자 치마 저고리, 방배동 출토 목우상>
-《우리옷 이천년(2001), p53》

5. 조선시대복식

조선시대 복식은 태조 즉위년인 1392년부터 대한제국으로 독립되기 전까지 500년간의 복식을 말하며, 엄격한 신분사회로 품계에 따라 복잡한 복식제도를 이룬다.[34] 전기에는 명 복식의 영향을 받아 관복제도를 확립하였고, 중 ·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중국에서는 한족에 의해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등장해 관복은 그대로 고수하면서도 우리 민족복식이 차츰 나름대로의 모습을 형성해 갔다. 특히 후기에는 남녀복 편복(便服)에 있어 겉옷(外衣)과 속옷(內衣)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35]

32) 유희경, 김문자(1998), 전게서, p162
33) 문화관광부(2001), 전개서, p53
34) http://www.parkkyungja.co.kr/
35) 안명숙, 김용서(1996), 전개서, p72~p73

a. 남자복식

조선조 남자 복식은 '포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포제가 발달하였다. 단순히 방한을 위해 착용하였다기보다는 착용자의 신분이나 예의를 갖추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내포되었다. 따라서 포제는 유관자들의 집무복인 관복용과 통상예복용인 편복포로 구분되었는데, 관복은 명나라 제도를 따른 외래적인 복식임에 비해 편복포는 우리 고유의 포제였다. 관복 중에 대표적인 단령은 현재까지도 신랑 혼례복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령 속에 받쳐 입는 직령, 융복용첩리 소매를 반으로 줄여서 달거나 아주 생략한 전복, 두루마기형 장의, 겨드랑이에 주름을 잡아주어 기능성을 보완한 액주음포, 포의 양옆이나 뒷부분에 트임을 주어 기동성을 배려한 중치막, 창의, 두루막힌 주의, 유학자들의 도포, 심의, 학창의 등 명칭도 다양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포제의 착용으로 바지, 저고리는 낮은 계급의 상민을 제외하고 속옷용으로 전용되었다. 심지어 양반네들은 집안 내에서 조차도 바지, 저고리 차림은 용납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포의 모양에 따라 머리에 쓰는 관모류도 다양하게 착용되었다. 고종(1863-1907년)대에는 복제개혁에 따라 소매가 넓은 옷의 착용이 금지되어, 점차 두루마기가 대표적인 포제로 남게 되었다. 그 외의 기본적인 한복 구성은 저고리와 바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36]

b. 여자복식

조선시대 여자복식은 남자복식에 비해 많은 변천을 겪지 않았다. 일반 여자복식의 경우 저고리나 치마는 그 길이나 선이 조금씩 변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인 구조는 초기의 국속을 벗어나지는 않았다.[37] 다만 이때 우리 치마 저고리의 현재의 기본 형태가 이루어졌다. 저고리의 깃과 소매통이 좁게 변화하였고 저고리 길이도 짧아져 허리에 메던 띠가 옷고름으로 변모되었을 뿐이다.[38]

---

36) http://www.yewonhanbok.com/
37) 안명숙, 김용서(1996), 전게서, p116
38) 김영숙, 김명숙(1999), 전게서, p189

(1) 저고리

조선 시대를 초기 · 중기 · 후기로 나눈 저고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조선 초기 저고리(그림 Ⅱ-12)의 특징

· 등길이가 남자 저고리처럼 길다.

· 소매는 직배래이고 통수이며, 길이가 길다.

· 깃 모양은 겉깃과 안깃이 모두 현대 저고리의 안깃 형태와 비슷하다. 깃에는 넓은 동정이 있는데 현대의 깃보다 넓다.

· 섶머리는 뾰족하게 되어 있고, 섶 밑이 넓어 겹침이 많다.

· 옆은 현대 두루마기의 무 같은 모양이고 도련은 당의의 도련과 같이 둥글다.

· 수구에는 넓은 다른 색의 끝동이 있어 깃, 섶, 곁마기와 같은 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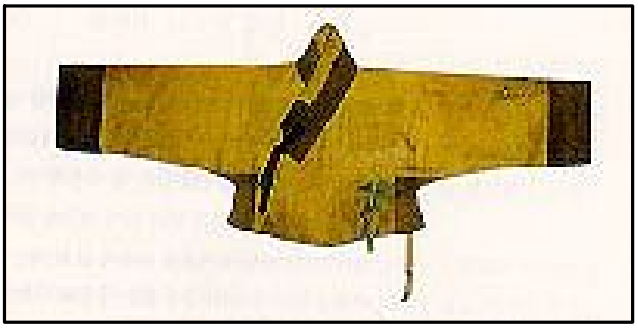
<그림 Ⅱ-12 초기 저고리,1560년대,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우리옷 이천년(2001), p104》

(b) 조선 중기 저고리(그림 Ⅱ-13)의 특징

· 등길이가 짧아졌다.

· 깃의 모양이 초기에는 현태의 안깃 모양이었던 것이 섶선의 변화와 함께 고름이 달리는 깃 끝이 섶선과 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깃 모양은 목판깃에서 당코 형식으로 되어 갔다.

· 화장이 짧아지고, 소매통과 끝동이 좁아졌다.



<그림 Ⅱ-13 당코깃 저고리(중기),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우리옷 이천년(2001), p105》

(c) 조선후기 저고리의 특징(그림 Ⅱ-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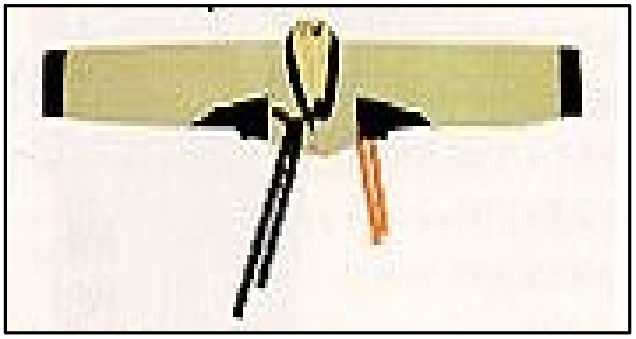
· 저고리 길이가 몹시 짧아졌고, 품도 몸에 맞도록 입었다.

· 화장이 더 짧아졌고, 진동도 좁아졌으며 부리는 거의 반으로 줄었다.

· 깃은 목판깃에서 둥글어져 약간 당코깃 형태가 되었다.

· 깃과 안섶 · 겉섶 · 끝동 · 고대 등 각 부위가 모두 작아졌으나, 곁마기는 커졌다.

· 고름은 겉고름의 길이가 길어졌고, 동정은 더욱 좁아졌다.



<그림 Ⅱ-14 삼회장 저고리, 1900-1910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우리옷 이천년(2001), p110》

(2) 치마

전통복식 중에서 오랫동안 가장 변화가 적었던 것으로, 저고리의 길이에 따라 치마 허리 위치가 달라져 가슴에 올라오게 착용도 되었고, 허리 부분에 위치하게도 되었다. 초기의 치마는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서 치마의 길이가 짧아졌지만 후기로 올수록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져 치마의 길이는 길어졌다.

(3)바지

일반적으로 치마 속에 착용하므로 남자 바지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며, 대체로 바지통이 넓고 앞뒤가 트인 것과 막힌 것이 있었다.[39]

6. 개화기의 복식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 복식에서도 서구화와 간소화가 시작되었다.

고종에 의해 복식변화가 일어나 갑신정변 때 신분의 구별 없이 모두 두루마기를 입었고 검정색 주의로 통일이 되었다. 남자의 저고리는 거의 별 변동 없이 조선말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때 새로 등장한 것이 두루마기, 마고자, 조끼이다.[40]

a. 남자복식

남자 한복은 현재 입혀지고 있는 우리 한복 고유의 기본형으로 간소화되었다. 포류는 두루마기 하나로 통일하였으며, 마고자와 함께 양복의 영향으로 조끼가 새로 생겨났다. 그 외 기존의 저고리와 바지는 우리 고유의 기본형 그대로 입었다.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전개합임형의 옷으로 마괘라고 하였고, 저고리보다 약간 크고 깃이 없으며 앞은 여며지지 않고 마주 닿아 끈이나 단추를 달아 여몄다.

39) 안명숙, 김용서(1996), 전게서, p124~p129
40) 안명숙, 김용서(1996), 전게서, p204~p205

조끼는 양복의 조끼를 본따 만든 것으로 전개합임형이며, 소매가 없고 앞길에 주머니를 달아 소지품을 넣고 다닐 수 있게 만든 편리한 옷이다.

b. 여자복식

개화기 일반 부녀자들의 복식에서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져 겨드랑이 밑의 살을 가리기 위해 특수한 허리띠를 착용하게 하였으며, 치마 형태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00년대부터 일부 개화한 여성들 사이에서부터 저고리가 길어지기 시작해서 1920년대에 와서는 특수층 외에는 일반적으로 저고리 길이, 화장, 진동, 배래 그리고 수구 등이 모두 넉넉해졌다. 길어진 저고리에는 유학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입혀진 검정색의 짧은 통치마가 국내에 유입되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 통치마는 무릎 아래까지 닿는 짧은 치마였으며 주름을 넓게 잡았다.[41]

C. 한복의 기본구조

한복은 원래 의고 분리의 알타이계 복식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복식제도이다. 한복은 의고(衣袴) 분리라는 복식 특색을 가지고 있다. 상의와 하의가 나누어져 있어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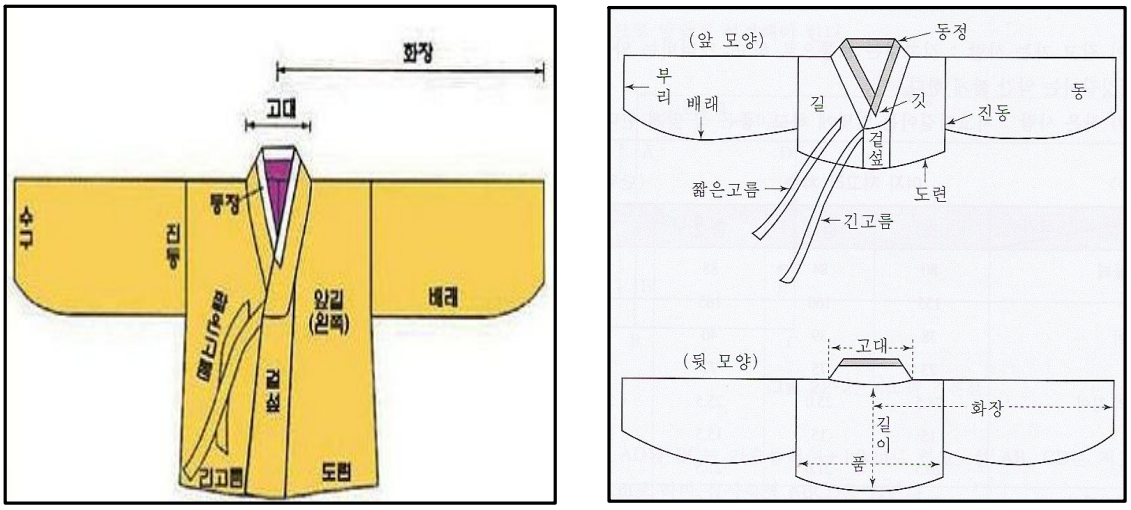
저고리는 길, 소매, 깃, 동정, 고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자의 경우 끝동이 달리기도 한다. 저고리는 소재, 재봉법, 모양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홑 · 겹 · 솜 · 누비 저고리는 소재의 두께와 재봉법에 따라 나눈 종류이고, 저고리 각 부분에 다른 색의 감을 쓴 데에 따라 민저고리, 반회장저고리, 삼회장저고리로 나누었다. 여자 바지는 치마와 단속곳 속에 입는 속바지로 되어 모양이 남자 바지와 다르며, 조선후기에는 관고의 밑을 따로 떨어지게 만들어 여러 계층에서 모두 입었는데 그 종류로는 바지, 너른 바지, 고쟁이, 단 속곳 등이 있다. 치마는 유동적인 곡선미가 뛰어난 옷으로 허리부분

41) 조오순, 박혜원(2000), 전게서, p46~p48

에서 잘게 주름을 잡아 볼륨감을 살려 항상 풍성하게 한 특색이 있어 한복 특유의 매력을 보여준다.[42]

1. 저고리

저고리는 웃옷의 통칭으로 삼국시대 이래로 현재까지 입혀지고 있다. 모양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상고시대에는 저고리의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와 허리에 끈을 둘러 입었으나 차츰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고름이 달리고 깃의 모양과 위치, 화장의 크기, 고름의 길이, 배래의 모양에도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 저고리는 남녀노소 모두 착용한 복식이며,[43] 저고리는 성인 남자, 성인 여자, 남자 아이, 여자 아이 등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 저고리의 주된 명칭은 다음 <그림 Ⅱ-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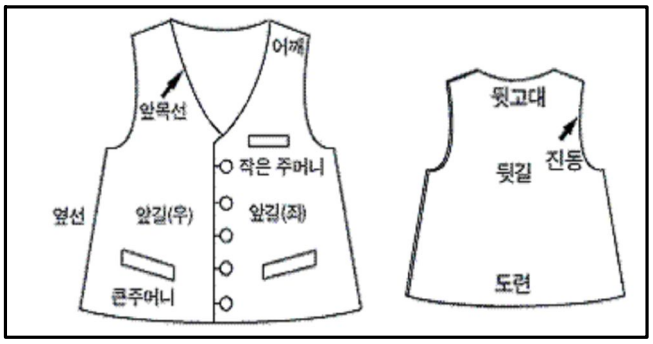
<그림 Ⅱ-15 저고리의 형태와 명칭 좌-男, 우-女>

42) 우리의 한복 http://user.chollian.net/~kjg0520/
43) 심화진 외, 「우리옷 만들기」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저고리의 구성은 몸체를 이루고 있는 몸판, 깃, 여밈 부분의 섶, 팔 부분의 소매통 등으로 구별된다. 이 중 가장 변화의 폭이 심한 곳은 저고리 길이와 도련, 소매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섶은 저고리의 좌우에 각각 달리는데 기능적으로 양쪽의 앞을 여미는 여분이 되며, 미적으로도 변화의 선으로 형태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깃은 앞몸판에서 뒷몸판까지 연결되어 목둘레를 장식하며 한국 복식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옷고름은 기능적으로 의복을 정돈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후대에 갈수록 저고리의 길이는 짧아지고 옷고름은 점차 길어지면서 장식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동정은 의복의 관리면에서 세탁하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로 저고리의 단정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44]

2. 조끼

조끼<그림 Ⅱ-16>는 서양복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착용된 것으로 저고리 위에 입고 앞 중심에 단추로 여미게 되었다. 조선시대 남자들은 저고리 위에 소매가 없는 배자를 입었는데 이것이 조끼 형태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끼는 저고리 길이 보다 1.5cm 정도 길고 좌우 앞길에 주머니가 있으며 좌측길의 가슴부분에 작은 주머니가 있어 남성들의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통한복에서는 볼 수 없는 주머니가 있고 고름 아닌 단추로 여미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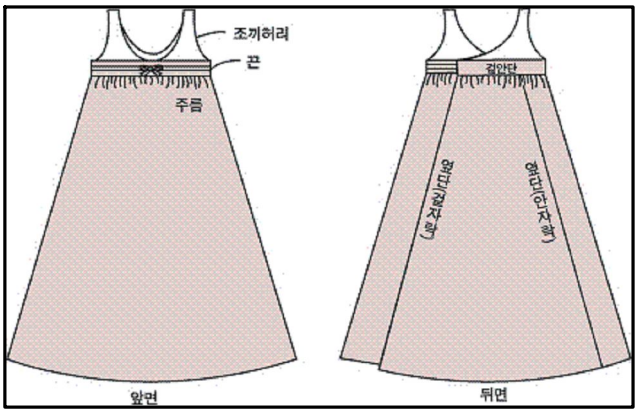


<그림 Ⅱ-16 조끼의 형태와 명칭>

44) 우리의 한복 http://user.chollian.net/~kjg0520/

3. 치마

치마<그림 2-17>는 폭을 이어 붙이고 위쪽에 주름을 잡아 허리에 달아서 가슴에서 매어 입는 여자들의 하의(下衣)이다. 우리나라 여자의 치마는 입체적인 서양복식과는 달리 옷감을 직선적으로 재단하고 이를 꿰매는 평면적인 옷을 만들어 입체적인 인체에 맞도록 남은 부분을 주름 잡거나 접어서 끈을 고정시키는 형태적 특성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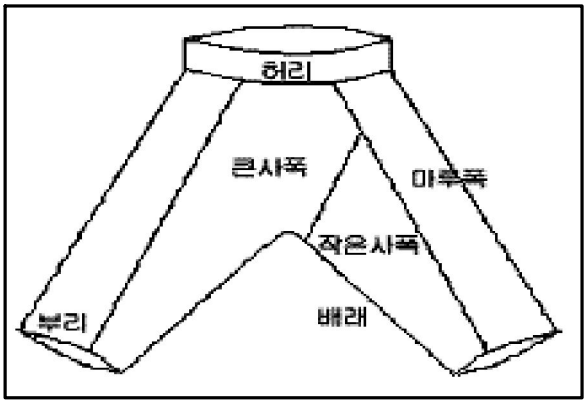


<그림 Ⅱ-17 치마의 형태와 명칭>

4. 바지

바지<그림 Ⅱ-18>라는 명칭의 어원인 '파지(把持)'는 기록상으로 조선시대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高麗史)에 그 기록이 보인다. 우리나라 고유형의 바지는 바지통과 가랑이가 좁아 활동적이고 허리와 부리에 끈이 달려 있어 편리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와서 폭이 넓고 마루폭, 사폭, 허리로 구성되었다. 삼국시대에는 남녀 모두가 바지를 입었는데,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본복식으로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남자 바지는 조선시대에 사폭이 조금 넓어졌다 좁아졌다하는 정도였고, 여자 바지는 속옷화하여 조선시대에는 밑이 벌어지는 형태가 되었다가 오늘날에는 다시 원래의 막힌 형태로 되었다.[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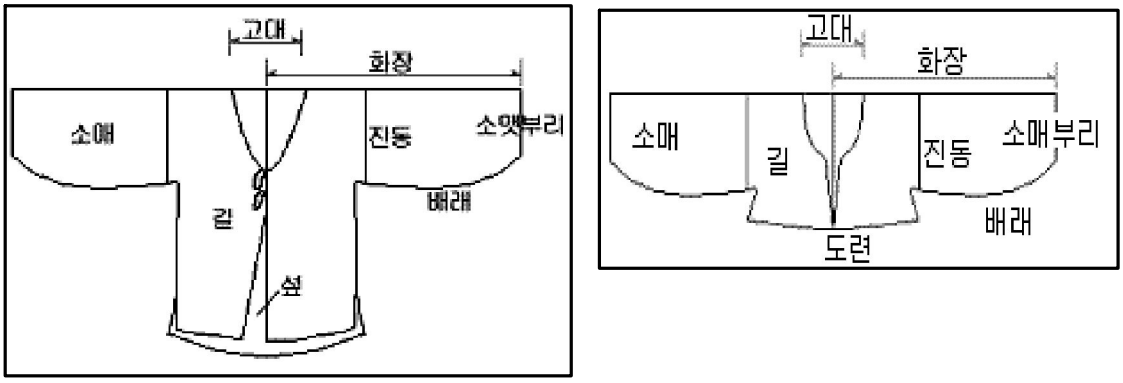
45) 심화진 외, 「우리옷 만들기」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그림 Ⅱ-18 바지의 형태와 명칭>

5. 마고자

원래 마고자<그림 Ⅱ-19>는 만주인의 의복이었으나 대원군이 만주 보정부의 유거 생활에서 풀려나와 귀국할 때 입고 돌아오면서 널리 착용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말기 이후에 특수계층의 집안에서 방한을 겸한 사치복으로 등장했다. 마고자는 일명 '덧저고리'라고도 불리며 용도에 따라 재봉법이 다르고 방한용으로 남녀가 같이 널리 착용 되고 있으며 남자에 있어서 저고리 위에 조끼를 입고 그 위에 덧입는 옷이므로 옷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입기도 한다.[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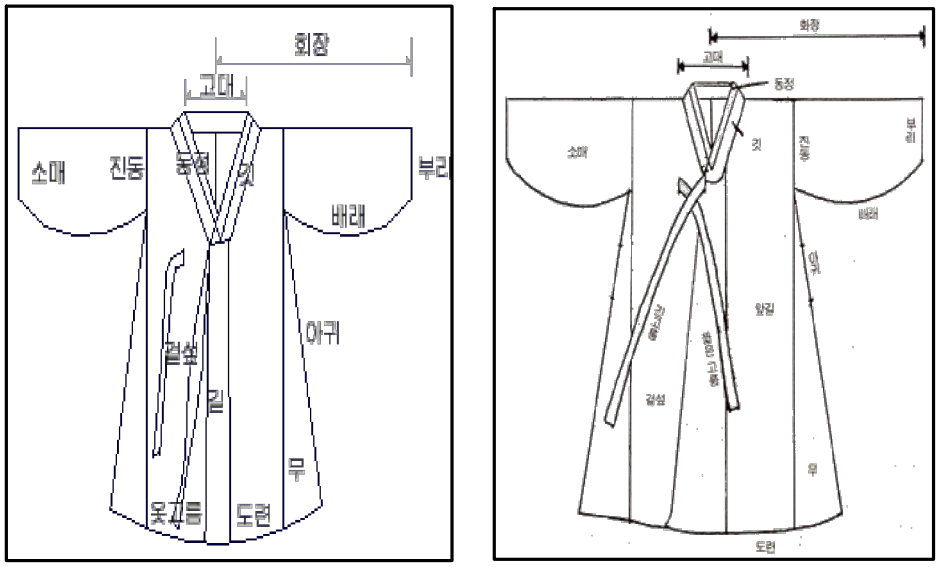


<그림 Ⅱ-19 마고자의 형태와 명칭 좌-男, 우-女>

46) http://www.yewonhanbok.com/

6. 두루마기

두루마기<그림 Ⅱ-20>는 갑오경장 이후 많은 종류의 포(袍)가 지금의 두루마기로 정착 되었으며, 신분의 차별 없이 남녀노소가 의례용으로 착용하여 왔다. 남자들은 도포 대신에 마고자 위에,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 위에 착용한 외의(外衣)로서 실용성과 방한용을 겸비하였다. 형태는 저고리와 비슷하나 양옆에 무를 달아 아래도련이 넓은 치마와 조화를 이루며, 옆선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아귀가 트여있는 것이 특징이다.[47]



<그림 Ⅱ-20 두루마기의 형태와 명칭 좌-男, 우-女>

47) 심화진 외, 「우리옷 만들기」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Ⅲ. 중 ·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내용

A. 가정과 교과내용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과 교육내용 영역별로 가르쳐야 할 내용 요소의 양과 수준, 학년별 배당 시간, 학생의 흥미, 실생활에 활용, 학교의 실험·실습 실정 등을 고려하였다. 가정과의 내용체계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가정교과 내용 체계

영역 \ 학년	7학년(중1)	8학년(중2)	9학년(중3)	10학년(고1)
가족과 일의이해	◈ 나와 가족의 이해 · 청소년의 특성 · 성과 이성교제 · 나와 가족관계			◈ 가정생활의 설계 ·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설계 · 결혼과 육아
생활기술	◈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 청소년의 영양 · 청소년의 식사 · 조리의 기초와 실제	◈ 의복 마련과 관리 ·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 의복마련계획과 구입 · 옷 만들기와 재활용 · 옷의 손질과 보관	◈ 가족의 식사 관리 · 식단과 식품의 선택 · 식사준비와 평가 · 식사예절	◈ 가정생활의 실제 · 초대와 행사의 계획과 준비 ·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만들기 · 나의 주거공간 꾸미기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 자원의 관리와 환경 · 자원의 활용과 환경 · 청소년의 일과 시간 · 청소년과 소비 생활	◈ 가족 생활과 주거 · 생활 공간의 활용 · 실내환경과 설비 · 주택의 유지와 보수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학년(중1)~10학년(고1)까지의 가정과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크게는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별로 학년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조직한 것을 볼 수 있다. 유사한 내용은 1개 학년에서 다루고 있고, 내용의 양이 많거나 수준을 달리 해야 할 경우에는 2개 학년에서 다루도록 하였으며, 난이도가 높은 것은 고학년에서 다루도록 하였다.[48]

B. 가정과에서의 의생활영역

가정과에서의 의생활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Ⅲ-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Ⅲ-2> 가정과에서의 의생활 내용체계

학교	학년	교과	대단원	중단원
초등학교	5	실과	2. 깨끗한 생활환경	1. 책상과 옷장정리하기
			8. 바늘과 실로 용품 만들기	1. 손바느질하기 2. 스킬자수와 뜨개질하기
	6	실과	4. 재봉틀로 용품 만들기	1. 재봉틀 다루기 2. 간단한 용품 만들기
중학교	8학년(중2)	기술· 가정	Ⅱ. 의복마련과 관리	1.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2. 의복마련계획과 구입 3. 옷 만들기와 재활용 4. 옷의 손질과 보관
고등학교	10학년(고1)	기술· 가정	Ⅱ. 가정생활의 실제	2.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11,12학년 (고2,3)	가정과학 (심화선택)	Ⅲ. 의생활	1. 의복의 선택과 활용 2. 의복의 재료와 관리 3.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4. 편물과 자수

48)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해설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 교과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며,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심화과정으로 선택해서 이수하게 된다. 8학년의 의복마련과 관리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의복마련계획을 세우고 의복 구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익히며 옷의 손질과 보관,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을 배우면서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일을 경험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습득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조현주,이가회, 2004).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10학년의 기술·가정교과에서 의생활 영역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론 영역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옷감을 이용한 생활 용품 만들기로 실습 영역의 교육내용이 들어가 있다.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영역에서는 생활용품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대한 내용과 커튼이나 각종 덮개류, 인형, 벽걸이, 침구, 앞치마, 옷 등 생활용품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손진숙, 2004).

다음으로 각 교과서에서 의생활 영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되는지 <표 Ⅲ-3>로 나타내어 보았다.

<표 Ⅲ-3> 출판사별 의생활 영역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49]

출판사	전체 쪽수	의생활단원 쪽수	대단원	중단원
교학사 교과서	225쪽	64쪽 (28.4%)	Ⅰ. 의복마련과 관리	· 우리들의 옷차림 · 의복마련하기 · 옷의 손질과 보관 · 옷 만들기와 재활용
금성사 교과서	237쪽	56쪽 (23.6%)	Ⅰ. 의복마련과 관리	·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 의복마련계획과 구입 · 옷 만들기와 재활용 · 의복의 손질과 보관
두산출판사 교과서	224쪽	66쪽 (29.5%)	Ⅰ. 의복마련과 관리	· 옷의 기능과 옷차림 · 옷의 구매와 관리 · 옷의 재활용과 만들기
대한교과서 교과서	208쪽	56쪽 (26.9%)	Ⅱ. 의복마련과 관리	·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 의복마련계획과 구입 · 의복의 손질과 보관 · 옷 만들기와 재활용

49) 강미향(2005).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의생활단원의 내용분석과 수업만족도 조사.중앙대석사논문

출판사	전체 쪽수	의생활단원 쪽수	대단원	중단원
동화사 교과서	223쪽	56쪽 (25.1%)	Ⅰ. 의복마련과 관리	· 의복과 생활 · 의복마련계획과 구매 · 의복의 손질과 보관 · 반바지 만들기와 수선하기
지학사 교과서	239쪽	54쪽 (22.6%)	Ⅰ. 의복마련과 관리	·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 의복의 손질과 보관 · 옷 만들기와 재활용
천재교육 교과서	224쪽	52쪽 (23.2%)	Ⅰ. 의복마련과 관리	·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 의복마련계획과 구입 · 의복의 손질과 보관 · 옷 만들기와 재활용
형설출판사 교과서	230쪽	66쪽 (28.7%)	Ⅱ. 의복마련과 관리	·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 의복마련계획과 구입 · 의복의 손질과 보관 · 옷 만들기와 재활용

※ 의생활단원 쪽수의(%)는 전체쪽수에 대한 의생활 단원 쪽수의 비율이다.

위 표를 살펴보면 전체쪽수는 평균 226.3쪽이었으며, 의생활영역의 쪽수는 평균 58.75쪽으로 두산출판사와 형설출판사가 66쪽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의생활 단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두산출판사가 29.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천재교육 교과서가 52쪽으로 가장 적었지만 비중으로는 지학사 교과서가 22.6%으로 가장 낮았다. 출판사별 단원 내용은 의생활 영역의 비중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함을 볼 수 있다.

C. 가정과 의생활 영역에서의 한복영역

가정과 의생활 영역에서 한복단원의 내용을 각 출판사별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교과서별 비교표

	전체 쪽수	한복단원 쪽수	대단원명	소단원주제	주제명	단원정리
교학사 교과서	225쪽	4쪽 (1.77%)	Ⅰ.의복마련과 관리	3.한복입기 1)남자한복입기 2)여자한복입기	상황에 따른 옷차림과 한복 착용법에 대해 알자	내용정리 익힘문제
금성사 교과서	237쪽	3쪽 (1.26%)	Ⅰ.의복마련과 관리	3.바른옷차림 1)한복입기 (1)남자한복입기 (2)여자한복입기	상황에 따른 옷차림과 한복 착용법에 대해 알자	물음 단원마무리
두산 출판사 교과서	224쪽	8쪽 (3.57%)	Ⅰ.의복마련과 관리	2.한복입기 1)여자한복 2)남자한복 3)한복차림과 몸가짐	상황에 따른 옷차림과 한복 착용법에 대해 알자	마무리탐구문제 대단원마무리 수행평가
대한 교과서 교과서	208쪽	6쪽 (2.88%)	Ⅱ.의복마련과 관리	3.한복에 대한 상식테스트 1)여자한복입기 2)남자한복입기	상황에 따른 옷차림과 한복 착용법에 대해 알자	형성평가 자료실 단원학습정리
동화사 교과서	223쪽	4쪽 (1.79%)	Ⅰ.의복마련과 관리	2.바른 옷차림 1)여자옷 2)남자옷	상황에 따른 옷차림과 한복 착용법에 대해 알자	심화학습 해보기 단원학습정리 단원확인문제
지학사 교과서	239쪽	6쪽 (2.51%)	Ⅰ.의복마련과 관리	3.바른 옷차림 1)한복 (1)여자한복 (2)남자한복	상황에 따른 옷차림과 한복 착용법에 대해 알자	보충학습 확인문제 대단원마무리
천재교육 교과서	224쪽	6쪽 (2.67%)	Ⅰ.의복마련과 관리	2.한복 1)여자한복 2)남자한복	상황에 따른 옷차림과 한복 착용법에 대해 알자	해보기 탐구문제 학습포인트 종합문제
형설 출판사 교과서	230쪽	6쪽 (2.17%)	Ⅱ.의복마련과 관리	4.우리 옷 입기 1)우리옷의변천 2)여자한복입기 3)남자한복입기 4)생활한복	상황에 따른 옷차림과 한복 착용법에 대해 알자	한걸음더 해보기 읽을거리 퍼즐로 알아봅시다

※ 한복단원 쪽수의(%)는 전체쪽수에 대한 한복단원 쪽수의 비율이다.

앞의 <표 Ⅲ-4>와 같이 한복단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2001학년도부터 시행된, 8개 출판사에서 개발한 8종 기술 · 가정 교과서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을 위주로 8종 기술 · 가정 교과서의 내용체계의 일부(전체쪽수, 한복단원쪽수)와 한복단원(대단원명, 주제명, 본문전개, 단원정리)의 내용체계를 분석하였다.

교과서의 내용체계에서 전체쪽수와, 한복단원의 쪽수에서 8종 교과서 전체쪽수는 평균 226.3쪽이었으며, 한복단원의 쪽수는 평균 5.2쪽으로 두산출판사 교과서가 8쪽으로 가장 많았고, 교학사 교과서와 동화사 교과서가 4쪽으로 가장 적었다.

각 교과서의 한복단원의 내용체계는 대단원명, 한복이 나타난 소단원, 본문 전개, 단원정리를 토대로 비교 분석을 하였다. 대단원명은 교학사, 금성사, 두산출판사, 지학사, 천재교육 등 5개 교과서가 모두 단원 Ⅰ. 의복마련과 관리로 되어 있었고, 대한교과서와 형설출판사의 2개 교과서는 단원 Ⅱ. 의복마련과 관리로 제시되어 있었다.

한복단원에 나타난 소단원 주제는 남자한복과 여자한복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두산출판사에서는 '한복차림과 몸가짐'이라는 단원이 형설출판사에서는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우리 옷의 변천'이라는 소제목으로 한복 입기에만 국한되었던 내용틀 안에서 한복의 변천과정에 관한 내용과 '생활한복'이라는 단원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복의 내용이 나타난 소단원의 주제는 모두 상황에 따라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하는지 알고, 한복을 입는 방법과 착용 후 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소영, 2006).

Ⅳ.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도시지역(서울, 광주)과 농 · 어촌(전남, 전북)으로 구분하여 중학교 4개교 2학년과 고등학교 4개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문항은 선행 연구된 문항 중에서 연구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문항들을 추출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문항 수는 4개영역 7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2008년 7월 1일부터 14일에 걸쳐 중학생 2학년과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일부 문항을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배부 및 수집은 2008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술·가정교사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배부하고 교사의 지도하에 작성하게 하였다. 총 880부를 배부하고, 배부한 질문지 중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15부를 제외한 865부(98.30%)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B. 측정도구

1.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부에는 전통한복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정도 2부에는 한복에 대한 의식정도 3부에는 한복수업 4부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징으로 문항이 포함되었다.

2. 설문지 개발

이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 김영미(2000), 정덕숙(1992), 권수애 · 최종명 · 이은경(1998), 김순심(2002), 정인희 · 최선형 · 강순제(1997)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 설문지 타당도

본 연구의 설문지에 대한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검증은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련의 적합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타당도를 증명하는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추출해내는 인자 타당도(factorial validity)의 형태(Allen & Yan, 1979)이므로 한복에 대한 이미지와 의식정도에 관련된 문항의 타당도 검증에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연구 분석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인 요인분석과 확인적인 요인분석으로 나누는데, 탐색적인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는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목적을 가진 분석방법이며, 확인적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로 연구자의 지식에 근거하여 내재된 요인차원 및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표 Ⅳ-1] ~ [표 Ⅳ-2]는 한복 이미지와 한복에 대한 의식정도에 관련된 문항으로 확인적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 한복 이미지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 목	계수	표준오차	C.R	적합도
심미적	아름답다	0.854	0.028	30.445***	χ^2=90.629, df=13, p값=0.000 GFI=0.972, AGFI=0.939 RMR=0.040, RMSEA=0.083 NFI=0.962, CFI=0.967
	우아하다	1.000	-	-	
	부드럽다	0.803	0.039	20.772***	
	화려하다	0.727	0.036	20.169***	
	품위가 있다	0.724	0.032	22.631***	
	토속적이다	0.392	0.040	9.809***	
	촌스럽다[a]	0.577	0.042	13.843***	
전통 · 품위적	전통적이다	0.645	0.051	12.594***	χ^2=9.235, df=3, p값=0.026 GFI=0.996, AGFI=0.979 RMR=0.026, RMSEA=0.049 NFI=0.988, CFI=0.992
	고풍스럽다	1.000	-	-	
	차분하다	0.789	0.066	12.032***	
	지적이다	0.763	0.079	9.693***	
	내재된 의미가 있다	0.331	0.055	5.979***	
기능 · 활동적	편해보인다	1.000	-	-	χ^2=39.643, df=7, p값=0.000 GFI=0.985, AGFI=0.955 RMR=0.039, RMSEA=0.073 NFI=0.961, CFI=0.968
	능력있어 보인다	0.577	0.056	10.321***	
	자연스럽다	0.778	0.060	12.944***	
	활동적이다	0.701	0.052	13.444***	
	불편하다[a]	0.418	0.048	8.697***	
	거추장스럽다[a]	0.325	0.052	6.206***	
평가적	색채가 다양하다	0.675	0.046	14.651***	χ^2=56.830, df=16, p값=0.000 GFI=0.984, AGFI=0.963 RMR=0.036, RMSEA=0.054 NFI=0.956, CFI=0.968
	예술적이다	0.942	0.057	16.549***	
	유행에 앞선다	0.462	0.049	9.413***	
	고급스럽다	1.000	-	-	
	신체결점을 감출 수 있다	0.641	0.054	11.891***	
	더워보인다[a]	0.191	0.056	3.390***	
	복잡하다[a]	0.147	0.042	3.515***	
	유행에 뒤쳐진다[a]	0.499	0.053	9.415***	

a : 역변환 문항

<표 Ⅳ-2> 한복에 대한 의식정도 확인요인분석 결과

항 목	계수	표준오차	C.R	적합도
1. 한복은 언제라도 입을 수 있다.	0.586	0.057	10.367***	χ^2=139.426, df=25, p값=0.000 GFI=0.966, AGFI=0.939 RMR=0.047, RMSEA=0.073 NFI=0.914, CFI=0.928
2. 한복은 우리 문화의 상징이다.	0.469	0.041	11.542***	
3. 한복은 누구나 다 어울린다.	1.000	-	-	
4. 명절에는 반드시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0.856	0.066	13.064***	
5. 한복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0.418	0.051	8.133***	
6. 한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다.	0.582	0.051	11.446***	
7. 한복을 입는 것은 생활 문화의 계승과 창조에 도움이 된다.	0.848	0.056	15.081***	
8. 한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a]	0.700	0.061	11.449***	
9. 앞으로 나와 내 후손들은 한복을 더 많이 입었으면 좋겠다.	0.991	0.063	15.705***	

a : 역변환 문항

4. 설문지 신뢰도

신뢰도는 측정도구의 안정성(stability) 및 일관성(consistency)과 관계가 있으며, 조작된 정의나 지표가 측정의 대상을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게 측정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신뢰도는 연구방법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인지적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지 조사는 비체계적이고 임의적인 오차를 유발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신뢰도 측정 방법으로 몇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 내적 일관성(item internal consistency)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인 Cronbach's α 검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다음의 [표 Ⅳ-3]~[표 Ⅳ-4]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이다. 한복에 대한 이미지와 한복에 대한 의식정도에 관련된 측정문항의 각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모두 0.6이상이므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3> 한복 이미지에 대한 척도의 하위영역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심미적요인	7	a2, a4, a5, a7, a8, a14, a24	0.825
전통·품위적요인	5	a1, a3, a11, a17, a26	0.671
기능·활동적요인	6	a6, a10, a13, a16, a20, a21	0.703
평가적요인	8	a9, a12, a15, a18, a19, a22, a23, a25	0.706
전체	26		0.902

<표 Ⅳ-4> 한복에 대한 의식정도 척도의 하위영역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의식정도	9	b1, b2, b3, b4, b5, b6, b7, b8, b9	0.776

5.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될 용어와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인식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한복에 대한 관심정도를 말한다.

b. 이미지

평상시 '한복'이란 단어를 연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말한다.

c. 의식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만든 내용들에 대해 학생들이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d. 심미적 요인

시각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e. 전통 · 품위적 요인

이는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떠나 우리 고유문화에 내재된 특성까지 아우르는 개념을 의미한다.

f. 기능 · 활동적 요인

한복 착용에서의 편리함과 활동성 여부를 말한다.

g. 평가적 요인

본인이 생각하는 한복의 장점과 단점을 기준으로 한복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C.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확인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교차분석(Pearson의 χ^2와 Fisher의 exact test), t-test를 사용하였다. 단, 가족구성, 생활정도, 월수입, 부모직업은 학생들이 사생활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D.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표집대상을 도시지역(서울, 광주)과 농 · 어촌(전남, 전북)으로 구분하여 임의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과에 속한 기술 · 가정을 수업 받는 중1 ~ 고1까지의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한복내용이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을 제외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점과, 지역선정 또한 4군데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Ⅴ. 연구 결과 및 해석

A.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Ⅴ-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48.4%, 여학생이 51.6%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학교분포에서는 중학교가 50.9%, 고등학교가 49.1%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은 도시가 51.2%, 농· 어촌이 48.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부모/나'가 67.0%로 타 가족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정도는 '중'이 54.6%, '중상'이 22.4%로 나타났다. 또한 월수입에서는 '2백만원~3백만원'이 26.0%, '1백만원~2백만원'이 21.9%, '3백만원~4백만원'이 2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이 29.8%로 타 직업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생산/단순노무직'과 '농어업'이 비슷하게 나왔다. 어머니 직업에서는 '기타'가 37.9%로 타 직업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단순노무직'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Ⅴ-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		N	%
성별	남	419	48.4
	여	446	51.6
학교	중학교	440	50.9
	고등학교	425	49.1
지역	도시	443	51.2
	농어촌	422	48.8
가족구성	부모/나	577	67.0
	조부모/부모/나	103	12.0
	증조부모/조부모/부모/나	5	0.6
	기타	176	20.4
생활정도	상	68	8.8
	중상	173	22.4
	중	421	54.6
	중하	88	11.4
	하	21	2.7
월수입	1백만원 미만	51	7.2
	1백만원~2백만원	156	21.9
	2백만원~3백만원	185	26.0
	3백만원~4백만원	146	20.5
	4백만원~5백만원	76	10.7
	5백만원 이상	98	13.8
부직업	전문/기술직	97	13.0
	판매직	73	9.8
	생산/단순노무직	129	17.2
	사무/관리직	223	29.8
	서비스직	83	11.1
	농어업	127	17.0
	기타	16	2.1
모직업	전문/기술직	53	7.2
	판매직	84	11.3
	생산/단순노무직	16	2.2
	사무/관리직	119	16.1
	서비스직	116	15.7
	농어업	72	9.7
	기타	281	37.9
	합 계	865	100.0

(단, 결측치는 제외)

B. 한복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정도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여기서는 성별, 학교, 지역으로만 비교)에 따라 한복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Ⅴ-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한복 소유가족 다중응답분석 N(%)

특성	구분	한복 소유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언니,오빠,동생	없음
성별	남	125(30.0)	248(59.5)	98(23.5)	184(44.1)	50(12.0)	74(17.7)	52(12.5)
	여	150(33.6)	290(65.0)	153(34.3)	317(71.1)	120(26.9)	101(22.6)	17(3.8)
학교	중학교	140(31.9)	262(59.7)	138(31.4)	250(56.9)	95(21.6)	83(18.9)	44(10.0)
	고등학교	135(31.8)	276(65.1)	113(26.7)	251(59.2)	75(17.7)	92(21.7)	25(5.9)
지역	도시	173(39.1)	282(63.8)	152(34.4)	253(57.2)	113(25.6)	97(21.9)	42(9.5)
	농어촌	102(24.2)	256(60.8)	99(23.5)	248(58.9)	57(13.5)	78(18.5)	27(6.4)

(※ 단, 다중응답으로 %는 100이 넘어갈 수 있다.)

한복을 소유한 가족의 구성을 살펴보면 1세대(할머니,할아버지) 2세대(아버지,어머니) 3세대(나,언니,오빠,동생)로 세대를 구분하였을 때, 1세대로 가면 갈수록 한복소유가 많아짐을 알 수 있고 반대로 3세대는 한복소유가 비교적 적은편이다. 이것으로 봤을 때 1세대는 한복의 가치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겠고 3세대는 현시대를 반영하듯 한복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 눈 여겨 볼만한 것이 도시와 농어촌의 한복 소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농어촌에서의 한복소유가 도시에서의 한복소유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적었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의 공업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Ⅴ-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한복을 좋아하는 가족 다중응답분석 N(%)

특성	구분	한복을 좋아하는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언니,오빠, 동생	없음
성별	남	65(16.1)	168(41.7)	27(6.7)	56(13.9)	27(6.7)	39(9.7)	108(26.8)
	여	73(16.6)	149(33.8)	27(6.1)	76(17.2)	148(33.6)	56(12.7)	102(23.1)
학교	중학교	66(15.5)	153(35.8)	27(6.3)	67(15.7)	94(22.0)	44(10.3)	127(29.7)
	고등학교	72(17.3)	164(39.3)	27(6.5)	65(15.6)	81(19.4)	51(12.2)	83(19.9)
지역	도시	93(21.6)	161(37.4)	34(7.9)	59(13.7)	92(21.3)	40(9.3)	122(28.3)
	농어촌	45(10.9)	156(37.8)	20(4.8)	73(17.7)	83(20.1)	55(13.3)	88(21.3)

<표 Ⅴ-3>의 응답을 보면 한복을 좋아하는 가족 또한 '할머니'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유여부와도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Ⅴ-4> 일반적인 특성과 부모님의 한복착용시기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부모님의 한복착용시기							X^2	p
		결혼식	명절	가족 행사	평상시	외출시	친목/ 단체모임	없음		
성별	남	77 (18.8)	125 (30.6)	56 (13.7)	5 (1.2)	1 (0.2)	6 (1.5)	139 (34.0)	25.551***	0.000
	여	125 (28.3)	82 (18.6)	81 (18.4)	2 (0.5)	2 (0.5)	7 (1.6)	142 (32.2)		
학교	중	103 (23.7)	113 (26.0)	64 (14.7)	4 (0.9)	1 (0.2)	8 (1.8)	141 (32.5)	3.332	0.786
	고	99 (23.8)	94 (22.6)	73 (17.5)	3 (0.7)	2 (0.5)	5 (1.2)	140 (33.7)		
지역	도시	97 (22.4)	119 (27.5)	68 (15.7)	5 (1.2)	1 (0.2)	3 (0.7)	140 (32.3)	9.997	0.111
	농어촌	105 (25.2)	88 (21.1)	69 (16.5)	2 (0.5)	2 (0.5)	10 (2.4)	141 (33.8)		

*** $p<0.001$

부모님의 한복 착용시기로는 남 · 여 모두 '없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학생은 결혼식 때(28.3%)이고, 남학생은 명절 때(30.6%)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평상시나 외출시에 한복착용을 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는데 이것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간편한 서양의복이 우리 전통의복보다 더 활성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편리

함 추구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 Ⅴ-5> 일반적인 특성과 적절한 한복착용시기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적절한 한복착용시기				X^2	p
		결혼식	명절	가족행사	평상시		
성별	남	51(12.4)	316(76.9)	36(8.8)	8(1.9)	13.020**	0.005
	여	86(19.5)	295(66.7)	43(9.7)	18(4.1)		
학교	중학교	59(13.6)	327(75.3)	34(7.8)	14(3.2)	7.085	0.069
	고등학교	78(18.6)	284(67.8)	45(10.7)	12(2.9)		
지역	도시	77(17.6)	312(71.4)	35(8.0)	13(3.0)	2.896	0.408
	농어촌	60(14.4)	299(71.9)	44(10.6)	13(3.1)		

** $p<0.01$

학생들이 생각한 한복을 착용하기 적절한 시기를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은 '명절'에서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명절'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평상시에 응답이 낮게 나온 것은 권수애, 최종명, 이은경(1998)의 연구에서처럼 일상 생활에 부적당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 Ⅴ-6>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				X^2	p
		자주 입고 싶은 생각이 있다	가끔 입고 싶은 생각이 있다	있다면 입어보겠다	전혀 없다		
성별	남	17(4.1)	87(20.9)	99(23.8)	213(51.2)	182.378***	0.000
	여	72(16.3)	232(52.6)	72(16.3)	65(14.7)		
학교	중학교	44(10.1)	156(35.9)	80(18.4)	155(35.6)	4.360	0.225
	고등학교	45(10.7)	163(38.6)	91(21.6)	123(29.1)		
지역	도시	47(10.7)	168(38.4)	95(21.7)	128(29.2)	4.620	0.202
	농어촌	42(10.0)	151(36.0)	76(18.1)	150(35.8)		

*** $p<0.001$

<표 Ⅴ-6>과 같이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을 본 결과에서,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01$).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없다'가 51.2%로

타 한복착용에 대한 견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가끔 있다'가 52.6%로 타 한복착용에 대한 견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7>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을 입고 싶다고 느낀 시기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을 입고 싶다고 느낀 시기					
		명절 때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	이성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한복집 앞을 지나갈 때	한복 입은 사람의 모습이 단아할 때	TV역사 드라마를 볼 때
성별	남	136(68.7)	2(1.0)	1(0.5)	8(4.0)	36(18.2)	15(7.6)
	여	165(45.0)	3(0.8)	4(1.1)	53(14.4)	103(28.1)	39(10.6)
학교	중학교	140(51.3)	4(1.5)	2(0.7)	30(11.0)	69(25.3)	28(10.3)
	고등학교	161(55.1)	1(0.3)	3(1.0)	31(10.6)	70(24.0)	26(8.9)
지역	도시	162(53.6)	2(0.7)	4(1.3)	36(11.9)	72(23.8)	26(8.6)
	농어촌	139(52.9)	3(1.1)	1(0.4)	25(9.5)	67(25.5)	28(10.6)

한복을 입고 싶다고 느낀 시기로는 모두 '명절때'가 다른 시기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Ⅴ-5>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상시보다 명절 때 TV프로그램에서나 주변에서 한복 입은 모습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한복이 민족의상으로 우리나라 고유명절에 입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권수애,최종명,이은경, 1998)에 대답하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표 Ⅴ-8>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에 대한 이미지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에 대한 이미지							X^2	p
		우리 민족의상	품위	아름다움	예복의 느낌	불편함	체형 감춤	독특한 의상		
성별	남	174 (43.4)	43 (10.7)	43 (10.7)	44 (11.0)	73 (18.2)	5 (1.2)	19 (4.7)	133.886***	0.000
	여	124 (28.6)	102 (23.5)	151 (34.8)	23 (5.3)	22 (5.1)	7 (1.6)	5 (1.2)		
학교	중	158 (36.7)	66 (15.3)	104 (24.1)	30 (7.0)	51 (11.8)	7 (1.6)	15 (3.5)	5.476	0.484

	고	140 (34.7)	79 (19.6)	90 (22.3)	37 (9.2)	44 (10.9)	5 (1.2)	9 (2.2)		
지역	도시	154 (36.4)	79 (18.7)	94 (22.2)	26 (6.1)	46 (10.9)	7 (1.7)	17 (4.0)	9.496	0.148
	농어촌	144 (35.0)	66 (16.0)	100 (24.3)	41 (10.0)	49 (11.9)	5 (1.2)	7 (1.7)		

*** p<0.001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에 대한 이미지와 비교해 본 결과,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01).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우리 민족의상'이 43.4%로 타 이미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타 이미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Ⅴ-9>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에 대한 관심정도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에 대한 관심정도			X^2	p
		관심 많다	어느정도 있다	전혀 없다		
성별	남	11(2.6)	185(44.4)	221(53.0)	79.748***	0.000
	여	39(8.8)	297(66.9)	108(24.3)		
학교	중학교	31(7.1)	247(56.4)	160(36.5)	3.165	0.206
	고등학교	19(4.5)	235(55.6)	169(40.0)		
지역	도시	30(6.8)	263(59.8)	147(33.4)	9.325**	0.009
	농어촌	20(4.8)	219(52.0)	182(43.2)		

** p<0.01, *** p<0.001

<표 Ⅴ-9>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정도에서는, 남학생은 절반 이상이 관심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53%), 여학생은 '어느 정도 있다'가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지역별로는 도시는 농 · 어촌에 비해 '어느정도 관심있다'가 59.8%로 높았고, 반면 농 · 어촌은 '전혀 없다'에 43.2%로 도시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생활수준이나 부모의 경제력 및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은 도시학생들이 농어촌 학생들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표 Ⅴ-10>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구성 중 특징 부위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구성 중 특징부위								X^2	p
		저고리	치마	옷고름	깃	동정	소매 곡선	앞뒤 도련	치마 트임		
성별	남	143 (35.4)	32 (7.9)	79 (19.6)	37 (9.2)	23 (5.7)	68 (16.8)	15 (3.7)	7 (1.7)	75.567***	0.000
	여	169 (38.0)	110 (24.7)	74 (16.6)	14 (3.1)	11 (2.5)	51 (11.5)	1 (0.2)	15 (3.4)		
학교	중학교	153 (35.7)	74 (17.2)	74 (17.2)	27 (6.3)	22 (5.1)	60 (14.0)	5 (1.2)	14 (3.3)	7.450	0.384
	고등학교	159 (37.9)	68 (16.2)	79 (18.8)	24 (5.7)	12 (2.9)	59 (14.0)	11 (2.6)	8 (1.9)		
지역	도시	160 (36.7)	69 (15.8)	83 (19.0)	24 (5.5)	17 (3.9)	64 (14.7)	9 (2.1)	10 (2.3)	2.090	0.955
	농어촌	152 (36.8)	73 (17.7)	70 (16.9)	27 (6.5)	17 (4.1)	55 (13.3)	7 (1.7)	12 (2.9)		

*** $p<0.001$

<표 Ⅴ-10>의 결과,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01$).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여자 모두 '저고리'가 각각 35.4%, 38.0%로 타 부위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Ⅴ-11> 일반적인 특성과 우리 옷에 대한 의견 비교 N(%)

특성	구분	우리 옷에 대한 의견					X^2	p
		독특한 구성으로 자랑스러움	색채배합이 뛰어나다	세련되지 못한 구성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민족복과 비교해 촌스럽다		
성별	남	123(29.7)	120(29.0)	12(2.9)	144(34.8)	15(3.6)	69.401***	0.000
	여	190(42.9)	183(41.3)	3(0.7)	61(13.8)	6(1.4)		
학교	중학교	154(35.3)	149(34.2)	9(2.1)	108(24.8)	16(3.7)	6.854	0.144
	고등학교	159(37.8)	154(36.6)	6(1.4)	97(23.0)	5(1.2)		
지역	도시	151(34.6)	167(38.2)	6(1.4)	101(23.1)	12(2.7)	4.295	0.368
	농어촌	162(38.6)	136(32.4)	9(2.1)	104(24.8)	9(2.1)		

*** $p<0.001$

위와 같이 일반적인 특성과 우리 옷에 대한 견해와 비교해 본 결과,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01).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에서는 입고 활동하기가 편하도록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34.8%, 다른 옷에서는 볼 수 없는 곡선의 '독특한 구성으로 자랑스러움'이 29.7%, 천연섬유에 깃들어 있는 여러 가지 색의 조화로 인한 '색채배합이 뛰어나다'가 29.0%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여학생에서는 '독특한 구성으로 자랑스러움'이 42.9%, '색채배합이 뛰어나다'가 41.3%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Ⅴ-12>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착용에 대한 생각과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착용에 대한 생각					χ^2	p
		어른이 되면 입어보고 싶다	필요하지만 가격이 비싸 입을수 없다	일상복으로서 불편해 없어도 된다	민족의상으로 필요할 때 입는다	필요성 못느낌		
성별	남	33(7.9)	24(5.8)	49(11.8)	188(45.2)	122(29.3)	50.234***	0.000
	여	61(13.7)	47(10.6)	28(6.3)	249(56.0)	60(13.5)		
학교	중학교	37(8.5)	33(7.6)	40(9.2)	230(52.6)	97(22.2)	6.531	0.163
	고등학교	57(13.4)	38(9.0)	37(8.7)	207(48.8)	85(20.0)		
지역	도시	48(10.9)	37(8.4)	39(8.9)	236(53.8)	79(18.0)	5.817	0.213
	농어촌	46(10.9)	34(8.1)	38(9.0)	201(47.6)	103(24.4)		

*** p<0.001

그러나 <표Ⅴ-12>에서 나타나는 한복착용에 대한 생각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보다는 그래도 남학생, 여학생 모두 '민족의상으로 필요할 때 입는다'가 각각 45.2%, 56.0%로 착용에 대한 생각이 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Ⅴ-13>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						X^2	p
		활동하기 불편해서	입을 기회가 없어서	입기가 복잡해서	한복이 없어서	가격이 비싸서	무관심		
성별	남	103 (24.8)	51 (12.3)	55 (13.2)	92 (22.1)	25 (6.0)	90 (21.6)	114.749***	0.000
	여	99 (22.2)	156 (35.0)	16 (3.6)	120 (26.9)	30 (6.7)	25 (5.6)		
학교	중학교	113 (25.7)	104 (23.6)	35 (8.0)	97 (22.0)	31 (7.0)	60 (13.6)	5.133	0.400
	고등학교	89 (21.1)	103 (24.4)	36 (8.5)	115 (27.3)	24 (5.7)	55 (13.0)		
지역	도시	113 (25.7)	123 (28.0)	41 (9.3)	91 (20.7)	26 (5.9)	46 (10.5)	20.546**	0.001
	농어촌	89 (21.1)	84 (19.9)	30 (7.1)	121 (28.7)	29 (6.9)	69 (16.4)		

** $p<0.01$, *** $p<0.001$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표 Ⅴ-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과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에서는 한복을 입고 '활동하기 불편해서', '집에 한복이 없어서', '무관심'이 각각 24.8%, 22.1%, 21.6%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에서는 밖에 드러내고 '입을 기회가 없어서', 개인소유의 '한복이 없어서', '입고 활동하기 불편해서'가 각각 35.0%, 26.9%, 22.2%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살펴보면 도시에서는 '입을 기회가 없어서', '활동하기 불편해서'가 각각 28.0%, 25.7%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에서는 '한복이 없어서', '활동하기 불편해서'가 각각 28.7%, 21.1%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Ⅴ-14>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착용시 불편한 점과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착용시 불편한 점							X^2	p
		옷고름/대님매기	주머니가 없는것	허리 여미기	용변시	갖추어 입기가 어려워	길이가 긴 것	넓은폭 소매/치마		
성별	남	18 (4.4)	86 (21.2)	7 (1.7)	73 (18.0)	191 (47.2)	12 (3.0)	18 (4.4)	85.791***	0.000
	여	70 (15.8)	106 (24.0)	9 (2.0)	67 (15.2)	109 (24.7)	59 (13.3)	22 (5.0)		
학교	중학교	37 (8.5)	111 (25.6)	8 (1.8)	72 (16.6)	152 (35.1)	39 (9.0)	14 (3.2)	10.952	0.090
	고등학교	51 (12.3)	81 (19.6)	8 (1.9)	68 (16.4)	148 (35.7)	32 (7.7)	26 (6.3)		
지역	도시	47 (10.9)	105 (24.4)	10 (2.3)	66 (15.3)	146 (34.0)	35 (8.1)	21 (4.9)	3.682	0.720
	농어촌	41 (9.8)	87 (20.9)	6 (1.4)	74 (17.7)	154 (36.9)	36 (8.6)	19 (4.6)		

*** $p<0.001$

<표 Ⅴ-14>와 같이 한복착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p<0.001$). 응답자 모두 '갖추어 입기가 어려워'로 권수애, 최종명, 이은경(1998)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여자한복보다 남자한복의 종류가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주머니가 없는 것'인데 이는 소지품 소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Ⅴ-15>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에 대한 변화 의견과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에 대한 변화 의견					X^2	p
		시대에 맞는 디자인으로 변화되었으면 한다	착용하기 간편했으면 한다	색상이 강한 대비를 이루지 않았으면 한다	길이에 과감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관리하기 편한 옷감을 사용했으면 한다		
성별	남	158(41.1)	163(42.4)	13(3.4)	18(4.7)	32(8.3)	39.754***	0.000
	여	153(35.7)	142(33.1)	4(0.9)	53(12.4)	77(17.9)		
학교	중학교	161(39.0)	162(39.2)	8(1.9)	28(6.8)	54(13.1)	4.603	0.331

	고등학교	150(37.5)	143(35.8)	9(2.3)	43(10.8)	55(13.8)		
지역	도시	157(39.1)	137(34.1)	11(2.7)	33(8.2)	64(15.9)	8.216	0.084
	농어촌	154(37.5)	168(40.9)	6(1.5)	38(9.2)	45(10.9)		

*** p<0.001

한복에 대한 변화 의견과 비교해 본 <표 Ⅴ-15>의 결과,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01). 성별을 살펴보면 남, 여 모두 '착용하기 간편하며 시대에 맞는 디자인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직까지는 전통한복에 대해 속곳부터 여러 가지 겹쳐서 입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전통한복의 고수로 인한 디자인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다.

<표 Ⅴ-16>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구매 의사여부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구매 의사여부		X^2	p
		예	아니오		
성별	남	164(39.1)	255(60.9)	91.394***	0.000
	여	318(71.5)	127(28.5)		
학교	중학교	235(53.4)	205(46.6)	2.056	0.152
	고등학교	247(58.3)	177(41.7)		
지역	도시	272(61.5)	170(38.5)	12.136***	0.000
	농어촌	210(49.8)	212(50.2)		

*** p<0.001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구매 의사여부와 비교해 본 결과, 성별과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아니오'가 60.9%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예'가 71.5%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긍정대답이 높은 이유는 앞의 <표 Ⅴ-2>와 <표 Ⅴ-3>의 결과와 같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즉, 명절이나 집안의 대소사를 지내면서 어른들이 한복을 입고 활동하는 모습에 경제적인 여건이 가능하다면 사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지역을 살펴보면 도시에서는 경제적인 '예'가 61.5%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에서는 '예', '아니오'가 각각 49.8%, 50.2%로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농촌보다는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가 더 구매력이 높게 나타난 것 같다.

<표 Ⅴ-17>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 구매의사가 없는 이유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 구매의사가 없는 이유					
		몸매를 감추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친구들이 입지 않기 때문에	놀림을 받을까봐	시대에 뒤떨어진다 생각할거 같아서	나이가 들어보이기 때문에
성별	남	15(6.0)	63(25.3)	58(23.3)	20(8.1)	66(26.5)	27(10.8)
	여	1(0.9)	33(28.2)	46(39.3)	5(4.3)	24(20.5)	8(6.8)
학교	중학교	8(4.0)	56(28.3)	57(28.8)	13(6.6)	51(25.8)	13(6.6)
	고등학교	8(4.8)	40(23.8)	47(28.0)	12(7.1)	39(23.2)	22(13.1)
지역	도시	8(4.8)	37(22.3)	54(32.5)	13(7.8)	41(24.7)	13(7.8)
	농어촌	8(4.0)	59(29.5)	50(25.0)	12(6.0)	49(24.5)	22(11.0)

위와 같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한복 구매의사가 없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생각할 거 같아서', '가격 때문에', '친구들이 입지 않기 때문에'가 각각 26.5%, 25.3%, 23.3%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친구들이 입지 않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다 생각할 거 같아서'가 각각 39.3%, 28.2%, 20.5%순으로 나타났다.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이유는 청소년 시기는 외모와 유행을 중시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Ⅴ-18>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학습 유무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학습 유무		X^2	p
		예	아니오		
성별	남	240(57.4)	178(42.6)	89.750^{***}	0.000
	여	384(86.3)	61(13.7)		
학교	중학교	331(75.4)	108(24.6)	4.268^{*}	0.039
	고등학교	293(69.1)	131(30.9)		
지역	도시	315(71.3)	127(28.7)	0.488	0.485
	농어촌	309(73.4)	112(26.6)		

* p<0.05, *** p<0.001

위와 같이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학습 유무와 비교해 본 결과, 성별과 학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예'가 각각 57.4%, 86.3%로 '아니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예'가 각각 75.4%, 69.1%로 '아니오'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듯이 '아니오'로 대답한 학생들 가운데 지역적인 면에서는 농·어촌은 교사와 학생수의 부족,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교사들의 순회근무로 배우지 않않았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이면서 배운 학생과 안 배운 학생으로 나뉜 것은 <표 Ⅴ-24>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루한 내용이라 학생들의 관심이 없어서 배웠어도 기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으로 사료된다.

<표 Ⅴ-19>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학습경로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학습경로			
		가정에서	중학교 수업시간	고등학교 재량활동시간	기타
성별	남	10(4.2)	207(86.3)	1(0.4)	22(9.2)
	여	33(8.6)	326(85.3)	0(0.0)	23(6.0)
학교	중학교	27(8.2)	274(83.0)	0(0.0)	29(8.8)
	고등학교	16(5.5)	259(88.7)	1(0.3)	16(5.5)
지역	도시	31(9.9)	243(77.4)	1(0.3)	39(12.4)
	농어촌	12(3.9)	290(94.2)	0(0.0)	6(1.9)

<표 Ⅴ-19>과 같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한복 한복학습경로를 알아본 결과, 성별, 학교, 지역 모두 '중학교 수업시간'이 높게 나왔다. 이는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 한복단원이 중학교 2학년 기술· 가정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 수업시간으로 대답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한복관련 학습이 거의 학교에서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민족 고유의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다 조직적이고 실천적 한복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가정시간을 늘려 한복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Ⅴ-20>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착용학습 교육자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학습 교육자				
		조부모	부모	선생님	주변인	책/TV/인터넷
성별	남	2(0.9)	15(6.4)	211(89.8)	5(2.1)	2(0.9)
	여	8(2.1)	59(15.8)	302(81.0)	1(0.3)	3(0.8)
학교	중학교	7(2.2)	38(11.8)	270(83.9)	4(1.2)	3(0.9)
	고등학교	3(1.0)	36(12.6)	243(85.0)	2(0.7)	2(0.7)
지역	도시	6(1.9)	54(17.5)	240(77.9)	5(1.6)	3(1.0)
	농어촌	4(1.3)	20(6.7)	273(91.0)	1(0.3)	2(0.7)

위와 같이 한복착용 학습에 대한 교육자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 '선생님'으로 응답하였고, 책/TV/인터넷을 이용한 스스로 학습은 2,3명에 불과해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겠다.

<표 Ⅴ-21>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 학습방법과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 학습방법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모델이 나와 대표로 시범학습	모둠별 활동	동영상이나 실물을 보여주는 방식
성별	남	141(59.5)	64(27.0)	14(5.9)	18(7.6)
	여	151(40.1)	116(30.8)	52(13.8)	58(15.4)
학교	중학교	175(54.0)	75(23.1)	27(8.3)	47(14.5)
	고등학교	117(40.3)	105(36.2)	39(13.4)	29(10.0)
지역	도시	139(45.3)	81(26.4)	38(12.4)	49(16.0)
	농어촌	153(49.8)	99(32.2)	28(9.1)	27(8.8)

<표 Ⅴ-21>에서 보여주는 한복착용 학습방법을 알아본 결과, 과반수 이상이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였고 모둠별 활동의 대답은 저조했다. 이는 한복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기술 · 가정 교과에서 한복 수업은

이론보다는 실습을 해야 학생들이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억이 오래가는데 이론으로 학습해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표 Ⅴ-22>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 학습 후 습득 내용과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 학습 후 습득 내용					
		발생된 계기를 알고 있다	변천사를 알고 있다	정신적 가치를 알고 있다	구성과 명칭을 알고 있다	중요성을 알고 있다	배웠지만 알고있는 것이 없다
성별	남	3(1.3)	0(0.0)	21(8.9)	67(28.4)	33(14.0)	112(47.5)
	여	3(0.8)	5(1.3)	22(5.8)	203(53.1)	37(9.7)	112(29.3)
학교	중학교	3(0.9)	3(0.9)	24(7.3)	165(50.2)	44(13.4)	90(27.4)
	고등학교	3(1.0)	2(0.7)	19(6.6)	105(36.3)	26(9.0)	134(46.4)
지역	도시	4(1.3)	3(1.0)	27(8.7)	146(47.1)	35(11.3)	95(30.6)
	농어촌	2(0.6)	2(.6)	16(5.2)	124(40.3)	35(11.4)	129(41.9)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한복 학습 후 습득 내용을 알아본 결과,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배웠지만 알고 있는 것이 없다'가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구성과 명칭을 알고 있다'가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중학교는 '구성과 명칭을 알고 있다'가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배웠지만 알고 있는 것이 없다'가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중학교는 바로 배웠기 때문이고 고등학교는 배운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입을 기회가 없고, 입시교육으로 점차 중요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

<표 Ⅴ-23>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 수업의 도움정도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 수업의 도움정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남	6(2.5)	49(20.4)	73(30.4)	67(27.9)	45(18.8)
	여	29(7.6)	149(38.8)	131(34.1)	58(15.1)	17(4.4)
학교	중학교	27(8.2)	109(32.9)	117(35.3)	44(13.3)	34(10.3)
	고등학교	8(2.7)	89(30.4)	87(29.7)	81(27.6)	28(9.6)

지역	도시	16(5.1)	131(41.6)	105(33.3)	32(10.2)	31(9.8)
	농어촌	19(6.1)	67(21.7)	99(32.0)	93(30.1)	31(10.0)

습득내용에 따른 한복 수업의 도움정도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는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가 각각 30.4%, 27.9%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가 각각 38.8%, 34.1%로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앞의 <표 Ⅴ-9>의 한복에 대한 관심정도에서 여학생의 관심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다.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도시는 '약간 그렇다'가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은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가 32.0%, 30.1%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24>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				
		수업이 설명으로 진행되어서	실물로 진행된 수업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워서	용어가 어려워서	우리 옷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지루한 내용이라서
성별	남	45(24.9)	29(16.0)	46(25.4)	25(13.8)	36(19.9)
	여	56(28.6)	46(23.5)	57(29.1)	9(4.6)	28(14.3)
학교	중학교	50(27.2)	28(15.2)	53(28.8)	18(9.8)	35(19.0)
	고등학교	51(26.4)	47(24.4)	50(25.9)	16(8.3)	29(15.0)
지역	도시	49(30.1)	35(21.5)	34(20.9)	13(8.0)	32(19.6)
	농어촌	52(24.3)	40(18.7)	69(32.2)	21(9.8)	32(15.0)

학생들의 한복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교 모두 '용어가 어려워서', '수업이 설명으로 진행되어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표 Ⅳ-21>에서처럼 학습 방법의 결과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지루한 내용이라'라고 대답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보다 더 쉽

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하겠다.

<표 Ⅴ-25>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에 대한 수업량의 적절함과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에 대한 수업량의 적절함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생각	이해하기에 적절한 편이라 생각	부족한 편이라 생각	잘 모르겠다
성별	남	8(3.4)	34(14.3)	115(48.3)	81(34.0)
	여	33(8.7)	78(20.5)	200(52.5)	70(18.4)
학교	중학교	30(9.1)	83(25.3)	134(40.9)	81(24.7)
	고등학교	11(3.8)	29(10.0)	181(62.2)	70(24.1)
지역	도시	21(6.7)	55(17.6)	172(55.0)	65(20.8)
	농어촌	20(6.5)	57(18.6)	143(46.7)	86(28.1)

한복에 대한 수업량의 적절함의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응답이 '부족하다(52.5%)'로 대답하였고 남학생들은 '잘 모르겠다(34.0%)'를 응답하였다. 그 외 학교나 지역에서도 대부분 '부족한 편'과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 중 교과 운영은 담당 교사의 재량으로 시간배분을 하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다.

<표 Ⅴ-26>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명칭의 인지도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명칭의 인지도			X^2	p
		그렇다	조금 안다	전혀 모른다		
성별	남	14(3.4)	285(69.2)	113(27.4)	54.633***	0.000
	여	18(4.1)	386(87.7)	36(8.2)		
학교	중학교	22(5.1)	333(76.9)	78(18.0)	4.3637	0.098
	고등학교	10(2.4)	338(80.7)	71(16.9)		
지역	도시	20(4.6)	348(80.0)	67(15.4)	4.063	0.131
	농어촌	12(2.9)	323(77.5)	82(19.7)		

*** $p<0.001$

<표 Ⅴ-27>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 입는 순서에 대한 인지도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 입는 순서에 대한 인지도			X^2	p
		그렇다	조금 안다	전혀 모른다		
성별	남	23(5.5)	212(50.8)	182(43.6)	130.378***	0.000
	여	78(17.6)	319(71.8)	47(10.6)		
학교	중학교	63(14.4)	265(60.6)	109(24.9)	6.524*	0.038
	고등학교	38(9.0)	266(62.7)	120(28.3)		
지역	도시	69(15.6)	262(59.3)	111(25.1)	13.256**	0.001
	농어촌	32(7.6)	269(64.2)	118(28.2)		

* p<0.05, ** p<0.01, *** p<0.001

<표 Ⅴ-26>과 <표 Ⅴ-27>의 결과를 보면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p<0.001). 한복의 명칭과 한복 입는 순서에 대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응답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여학생들이 한복에 대한 관심도가 남학생보다 많기 때문에 학습을 인지하는 데에 있어서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 Ⅴ-28> 일반적인 특성과 한복착용에 대한 인지도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착용에 대한 인지도					X^2	p
		치마의 여밈 방향을 알고 있다	옷고름을 맬 줄 안다	바지의 여밈 방향을 알고 있다	대님 매는 방향을 알고 있다	어느것도 잘 모르겠다		
성별	남	10(2.4)	52(12.6)	60(14.5)	52(12.6)	240(58.0)	249.287***	0.000
	여	112(25.3)	186(42.1)	17(3.8)	20(4.5)	107(24.2)		
학교	중학교	43(9.9)	142(32.7)	48(11.1)	38(8.8)	163(37.6)	25.532***	0.000
	고등학교	79(18.7)	96(22.7)	29(6.9)	34(8.1)	184(43.6)		
지역	도시	62(14.1)	134(30.5)	47(10.7)	39(8.9)	158(35.9)	10.172*	0.038
	농어촌	60(14.4)	104(25.0)	30(7.2)	33(7.9)	189(45.4)		

* p<0.05, *** p<0.001

한복 착용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남학생은 '어느 것도 잘 모르겠다'로 58.0%, 여학생은 '옷고름을 맬 줄 안다'에 42.1%를 응답하였다. 반면 학교에서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잘 모르겠다'의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앞의 <표 Ⅴ-22>의 한복 학습 후 습득내용의 결과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일거라 생각된다.

C. 한복에 대한 이미지와 의식정도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복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와 의식정도에 대해 나타내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Ⅴ-29> 한복에 대한 이미지의 하위요인 비교

분류	변인	구분	M	SD	t	p
성별	심미적요인	남	3.70	0.735	-7.600***	0.000
		여	4.13	0.591		
	전통·품위적요인	남	3.60	0.698	-6.852***	0.000
		여	3.97	0.545		
	기능·활동적요인	남	2.51	0.778	-2.046*	0.041
		여	2.64	0.659		
	평가적요인	남	2.94	0.597	-9.518***	0.000
		여	3.37	0.494		
학교	심미적요인	중학교	3.92	0.739	-1.732	0.084
		고등학교	4.01	0.609		
	전통·품위적요인	중학교	3.80	0.691	-1.247	0.213
		고등학교	3.86	0.560		
	기능·활동적요인	중학교	2.64	0.731	1.855	0.064
		고등학교	2.53	0.681		
	평가적요인	중학교	3.21	0.599	0.066	0.947
		고등학교	3.20	0.550		
지역	심미적요인	도시	4.01	0.694	1.828	0.068
		농어촌	3.91	0.668		
	전통·품위적요인	도시	3.82	0.629	-0.288	0.773
		농어촌	3.83	0.638		
	기능·활동적요인	도시	2.55	0.708	-1.433	0.152
		농어촌	2.63	0.709		
	평가적요인	도시	3.22	0.590	0.748	0.455
		농어촌	3.19	0.562		

* $p<0.05$, *** $p<0.001$

일반적인 특성(성별, 학교, 지역)에 따른 한복에 대한 이미지의 하위요인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각 요인에서 평균이 높게 나왔는데 그 중 심미적 요인이 4.13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p<0.001$). 즉 외관상 시각적으로 봤을 때 느끼는 요인들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미(美)에 관련해서 더욱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겠다. 학교에 따라서는 중학교는 기능·활동적요인과 평가적 요인이 높고, 고등학교는 심미적 요인과 전통·품위적 요인이 높게 나왔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는 심미적 요인과 평가적요인이, 농어촌은 전통· 품위적요인과 기능· 활동적요인이 높게 나왔다.

<표 Ⅴ-30> 한복에 대한 의식정도 비교

변인	구분	M	SD	t	p
성별	남	3.17	0.657	-5.827***	0.000
	여	3.47	0.615		
학교	중학교	3.39	0.667	1.544	0.123
	고등학교	3.31	0.624		
지역	도시	3.41	0.640	2.126*	0.034
	농어촌	3.30	0.653		

* $p<0.05$, *** $p<0.001$

<표 Ⅴ-30>과 같이 한복에 대한 의식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성별과 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Ⅳ-2>를 참조하여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한복에 대한 의식들이 높게 나타났고, 도시가 농어촌보다 의식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한복의 접촉 기회가 더 많고 한복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따라 접촉할 수 있는 빈도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D. 한복학습 유무와 한복에 대한 인식

한복학습의 유무에 따라 학생들이 어떻게 한복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표 Ⅴ-31> 한복학습 유무와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				X^2	p
		자주 입고 싶은 생각이 있다	가끔 입고 싶은 생각이 있다	있다면 입어보겠다	전혀 없다		
한복학습유무	예	70(11.3)	246(39.8)	121(19.6)	181(29.3)	12.747**	0.005
	아니오	19(8.0)	72(30.4)	50(21.1)	96(40.5)		

** p<0.01

한복학습 유무와 착용에 대한 의식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71.7%로 학습경험이 없는 학생(59.5%)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한복의 불편함을 직접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착용을 해 봄으로써 몸으로 느끼면서 한복에 대한 의식이 변함을 볼 수 있다. 단지 중학교 교과수업 뿐만 아니라 계발활동이나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처럼 교과 이외의 수업에서 좀 더 시간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 Ⅴ-32> 한복학습 유무와 우리 옷에 대한 의견 비교 N(%)

특성	구분	우리 옷에 대한 의견					X^2	p
		독특한 구성으로 자랑스럽게 생각	색채배합이 뛰어나다고 생각	세련되지 못한 구성이라 생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다른 민족복과 비교해 촌스럽다 생각		
한복 학습 유무	예	233(37.7)	237(38.3)	6(1.0)	130(21.0)	12(1.9)	23.577***	0.000
	아니오	79(33.3)	66(27.8)	9(3.8)	75(31.6)	8(3.4)		

*** p<0.001

<표 Ⅴ-32>과 같이 한복학습 유무와 우리 옷에 대한 견해와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01). 학습경험이 있는 경우는 '색채배합이 뛰어나다고 생각', '독특한 구성으로 자랑스럽게 생각'이 각각 38.3%, 37.7%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경험이 없는 경우는 '독특한 구성으로 자랑스럽게 생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각각 33.3%, 31.6%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33> 한복학습유무와 한복구매의사 여부와의 비교 N(%)

특성	구분	한복구매의사 여부		X^2	p
		예	아니오		
한복학습유무	예	380(61.0)	243(39.0)	24.585***	0.000
	아니오	101(42.3)	138(57.7)		

*** p<0.001

한복구매의사를 물어본 결과 학습경험이 있는 경우는 구매의사가 '있다'에 61.0%로 구매의사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학습경험이 없는 경우는 구매의사가 없는 경우가 57.7%로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학습경험의 유, 무에 따라 의식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한복학습이라 할지라도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습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복학습 시수의 확대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도시지역(서울, 광주)과 농 · 어촌(전남, 전북)으로 구분하여 중학교 4개교 2학년과 고등학교 4개교 1학년 865명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한 전통한복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정도와 의식과 한복학습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관심정도에서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복을 소유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할머니가 높게 나왔고, 부모님의 한복 착용에 있어서는 '없음'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명절과 결혼식 순으로 특별한 날에 착용하는 것으로 나왔다. 학생들은 한복 착용에 있어서 '명절'에 입으면 좋다고 생각했으며, 입고 싶은 의향에서는 남학생은 '없다(51.2%)'로 여학생은 '가끔 있다(52.6%)'로 타 견해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입고 싶다고 느낀 시기에 대해서는 둘 다 '명절 때'로 대답이 높게 나와 한복은 특별한 날에 입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복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는 남학생은 '우리 민족의상(43.4%)'로 여학생은 '아름다움(34.8%)'으로 타 견해보다 높게 대답을 하였고, 그에 비해 한복 착용과 관심정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혀 없다(53.0%)'와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낌(29.3%)'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남학생은 활동의 불편함을 들었고, 여학생은 입을 기회가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농 · 어촌이 도시에 비해 '한복이 없어서'로 높게 대답하였다. 또한 한복 착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남녀 모두 '갖추어 입기가 어려워' '활동하기 불편하다'는게 높게 나왔고 착용면에 있어서 '간편하게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주머니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복 구매 의사여부에서는 남학생은 경제력이 있을지라도 '아니오(60.9%)'로 대답을 하였고 이유로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생각할 거 같아서(26.5%)'가 가장 높았다.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과 반대로 경제력이 있을시 구매 의사 여부를 '예(71.5%)'로 대답을

하였다.

둘째, 한복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 모두 한복의 심미적 요인이 높은 반면 기능 · 활동적 요인은 낮았고, 전반적인 면에서는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복에 대한 의식은 도시의 평균이 농 · 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셋째, 한복학습을 살펴본 결과 학습 유무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예(86.3%)'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습경로로는 대부분 '중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학습' 하였다고 하였다. 학습 방법으로는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습 후 습득 내용으로는 남학생은 '배웠지만 알고 있는 것이 없다(47.5%)', 여학생은 '구성과 명칭을 알고 있다(53.1%)'로 차이를 보였다. 한복수업의 도움여부에 있어서는 남학생은 보통으로 여학생은 '약간 그렇다'로 대답해 성별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에서는 조사자 모두 '용어가 어려운 점'을 들었다. 수업량에 있어서는 모두 '부족한 편'이라고 하였고, 학습 후 한복명칭과 입는 순서에 남녀 모두 '조금 안다'로 대답하였고, 착용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는 남학생은 '어느 것도 잘 모르겠다'가 타 견해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옷고름을 맬 줄 안다'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의 시사점 및 교육적 의미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문화의 한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의복문화에서 한복을 이해하고 착용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민족의 뿌리를 계승해 나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서 더욱 소외되어가고 있는 한복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로 하여금

명절이나 성인식 같은 특별한 행사시에 한복을 착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행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 외에도 예절에 관련된 계발활동부서나 동아리를 만들어 활성화 시키고, 사회에서도 단지 캠페인이 아닌 예절교실처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활동하기 불편해서, 입을 기회가 없어서, 한복이 없어서로 지적되었다. 요즘 생활한복이 이를 대신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활동하기 편하고 착용하기 편한 소재의 개발로 한복을 착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덜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면에 있어서 같은 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대답이 두 분류로 나누어져 대답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겠다. 이는 배웠다 할지라도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옷에 대해 관심이 없고 지루한 내용이라 학생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농· 어촌에서는 교사와 학생 수 부족, 학교의 통· 폐합으로 인한 순환근무, 학습 자료 부족으로 학습의 유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한복학습은 실습중심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학습효과가 클 수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이론을 위주로 수업하는 경향으로 학습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의견 <부록>을 참조하여 일선 현장의 교사들은 자료 개발과 수업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논문>

강미향(2005).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의생활 단원의 내용분석과 수업만족도 조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김소영(2006). 기술 · 가정 교과서의 교수 · 학습 자료개발에 관한 연구-한국복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순심(2002). 청주지역 남·여대학생의 전통한복에 대한 이미지 연구. 서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학술지 논문

김영미(2000).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 및 선호도에 따른 패턴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오운자(1998). 한복착용실태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제주시 주부대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과 석사논문

손진숙(2004). 기술 · 가정교과 내의 의생활 영역에 대한 인식, 필요도, 실천도, 학습요구도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정덕숙(1992). 여자한복의 착용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진주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조현주,이가회(2004).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의생활 단원 내용분석 및 실천적 문제해결모형을 적용한 학습효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중등교육연구소

<학회지>

고정민,채금석(1999).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23, No5

권수애,최종명,이은경(1998). 한복의 착용 실태와 구매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7권 1호

정옥임(2006). 조선후기 자기기형과 여자 의복 실루엣의 유사성 연구. 복식 56(7)
정옥임(2008). 저고리 마름질꼴과 십승지의 기호학적 유사성 연구. 복식 58(9)
정인희,최선형,강순제(1997). 한국도시여성의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서울,대전,부산을 중심으로. 복식 35호
최선형,정인희,강순제(1998). 한국도시여성의 한복착용 및 구매실태. 복식 37호

<책>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해설(Ⅲ)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7
교육인적자원부(2006). 고등학교 복식디자인. 대한교과서(주)
김영숙,김명숙(1999). 한국복식사. 청주대학교 출판부
김판욱 외(2001). 중학교 기술 · 가정 2. 지학사
문화관광부(2001). 우리옷 이천년.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봉공진 외(2001). 중학교 기술 · 가정 2. 형설출판사
송해균 외(2001). 중학교 기술 · 가정 2. 대한교과서
심화진 외(2004). 우리옷 만들기.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안명숙,김용서(1996). 한국복식사. 교문사
유장림 외(2001). 중학교 기술 · 가정 2. 동화사
유희경,김문자(1998).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이봉구 외(2001). 중학교 기술 · 가정 2. 금성출판사
이상혁 외(2001). 중학교 기술 · 가정 2. 두산
이승신 외(2001). 중학교 기술 · 가정 2. 천재교육
이주원(1993). 직업훈련교재 일반과정 이론교재 한복.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정성봉 외(2001). 중학교 기술 · 가정 2. 교학사
조오순,박혜원(2000). 복식과문화. 창원대학교 출판부
차용준(2000). 전통문화의이해(전7권 중 제2권 전통복식·음식 · 주거문화편). 전주대학교

출판부

<인터넷 사이트>

http://gongmo.edu-i.org/2000/807/

http://www.parkyungja.co.kr/

http://user.chollian.net/~kjg0520

http://www.yewonhanbok.com/

<Ⅱ. C. 한복의 기본구조 그림 출처>

Ⅱ-15 저고리

- 남 : 심화진 외(2004). 우리옷 만들기.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여 : http://blog.naver.com/darry121?Redirest=Log&logNo=100004739502

Ⅱ-16 조끼 - 심화진 외(2004). 우리옷 만들기.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Ⅱ-17 치마 - 심화진 외(2004). 우리옷 만들기.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Ⅱ-18 바지 - http://www.yewonhanbok.com/

Ⅱ-19 마고자 - http://www.yewonhanbok.com/

Ⅱ-20 두루마기 - http://user.chollian.net/~kjg0520

<부록> 한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

학생들에게 한복에 대해 관심을 끌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상외로 대답이 다양하게 나와 그 내용을 토대로 비슷한 내용끼리는 묶어보았다.

- 우리 한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 가격을 낮추고 입기 쉽게 한다.
· 간편하고 실용적이며 현대적으로 개량한다.
·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만든다.
· 학생들이 빌려갈 수 있도록 한다.
· 고전미와 현대미를 합쳐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개량한다.
· 관리하기 쉬운 옷감으로 만든다.
· 광고를 많이 한다.
· 교과서에 한복에 대해 자세히 하여 첨부한다.
· 길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 드라마에 한복을 자주 등장시키고 드라마처럼 현대화된 한복으로 변화시킨다.
· 디자인을 다양하게 한다.
· 생활한복을 만든다.
· 한복을 세계화 시킨다.
· 신세대스럽게 다양한 디자인과 학생들 스타일에 맞게 길이조정 고려한다.
· 실습교육위주로 학습한다.
· 예쁘고 편리하게 멋을 살리게 만든다.
· 인터넷을 통한 한복 홍보/ 패션쇼 등을 한다.
· 캐릭터화를 한다.

· 퓨전한복을 만든다.

· 학교에 한복을 입는 방법 및 입고 나서의 예절을 알려주는 클럽이나 다양한 매체가 있었으면 한다.

· 한복 설명회/박람회 개최 및 참석한다.

· 한복을 교복처럼 만든다.

· 조금 더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화려하고 독특하게 하면 좋겠다.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과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될 자료입니다.

본 설문지는 중 · 고등학생들의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조사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 문항의 답은 맞거나 틀리는 답이 없으며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논문을 작성하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공개되는 일이 없사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귀하신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 전공
지도교수 : 정 옥 임
연 구 자 : 양 정 원

Ⅰ. 다음은 귀하의 한복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가족 중 한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나
⑥ 언니,오빠,동생 ⑦ 없음

2. 귀하의 가족 중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나
⑥ 언니,오빠,동생 ⑦ 없음

3. 귀하가 볼 때 부모님의 한복 착용은 주로 언제 합니까?
① 결혼식 ② 명절 ③ 가족행사(회갑,졸업식) ④ 평상시
⑤ 외출할때 ⑥ 친목,단체모임 ⑦ 착용한 적이 없다

4. 귀하가 생각할 때 한복은 언제 입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결혼식 ② 명절 ③ 가족행사 ④ 평상시

5. 귀하는 한복을 입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입어보고 싶은 생각이 자주 있다
② 가끔 입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③ 한복이 있다면 입어 보겠다
④ 전혀 입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6번 문항으로)

5-1. 만약 있다면 귀하가 한복을 입고 싶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① 명절 때 ② 친구들과 동아리 모임이 있을 때
③ 이성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④ 한복집 앞을 지나갈 때
⑤ 한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단아해 보일 때
⑥ TV 역사 드라마를 볼 때

6. 귀하는 우리 한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① 우리 민족의상 ② 품위 ③ 아름다움 ④ 예복의 느낌
⑤ 불편함 ⑥ 체형감춤 ⑦ 독특한 구성

7. 귀하는 한복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관심 많다 ② 어느정도 있다 ③ 전혀 없다

8. 한복구성 중에서 가장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① 저고리 ② 치마 ③ 옷고름 ④ 깃 ⑤ 동정 ⑥ 소매곡선 ⑦ 앞뒤도련 ⑧ 치마트임

9. 귀하의 우리 옷에 대한 생각은?
① 독특한 구성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② 색채배합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③ 세련되지 못한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④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⑤ 다른 민족복과 비교해 볼 때 촌스럽다고 생각한다

10. 귀하의 한복착용에 대한 생각은?
① 어른이 되면 입어보고 싶다
② 필요하지만 가격이 비싸 입을 수가 없다
③ 일상복으로서의 불편함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④ 민족의상으로 필요할 때 입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⑤ 한복보다 지금과 같은 옷이 더 좋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11. 귀하가 한복을 착용하지 **<u>않는</u>**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활동하기 불편해서 ② 입을 기회가 없어서 ③ 입기가 복잡해서
④ 한복이 없어서 ⑤ 가격이 비싸서 ⑥ 무관심

12. 귀하가 한복을 착용했을 때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① 옷고름이나 대님매기 ② 주머니가 없는 것 ③ 허리여미기
④ 용변시 ⑤ 갖추어 입기가 어려워 ⑥ 길이가 긴 것
⑦ 넓은 폭(소매 또는 치마)

13. 한복을 일상복으로 착용할 수 있게끔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시대에 맞는 디자인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② 착용하기 간편했으면 좋겠다
③ 색상이 강한 대비를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④ 길이에 과감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⑤ 관리하기 편한 옷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14. 귀하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한복을 구매하여 입을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15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14-1번 문항으로)

14-1. 한복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몸매를 감추기 때문에
② 가격 때문에
③ 친구들이 입지 않기 때문에
④ 놀림을 받을까봐서
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⑥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15. 귀하가 한복에 대하여 느끼는 점은 어떻습니까?(가장 가까운 난에 ∨표를 해주십시오)

	문항	매 우 그렇다	약 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 다	전 혀 그렇지않다
a1	전통적이다					
a2	아름답다					
a3	고풍스럽다					
a4	우아하다					
a5	부드럽다					
a6	편해보인다					
a7	화려하다					
a8	품위가 있다					
a9	색채가 다양하다					
a10	능력있어 보인다					
a11	차분하다					
a12	예술적이다					
a13	자연스럽다					
a14	토속적이다					
a15	유행에 앞선다					
a16	활동적이다					
a17	지적이다					

a18	고급스럽다					
a19	신체결점을 감출 수 있다					
a20	불편하다					
a21	거추장스럽다					
a22	더워보인다					
a23	복잡하다					
a24	촌스럽다					
a25	유행에 뒤쳐진다.					
a26	한복에는 내재된 의미가 있다					

Ⅱ. 다음은 한복에 대한 의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 주십시오.(가장 가까운 난에 ∨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 우 그렇다	약 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 다	전 혀 그렇지않다
1 (b1)	한복은 언제라도 입을 수 있다.					
2 (b2)	한복은 우리 문화의 상징이다.					
3 (b3)	한복은 누구나 다 어울린다.					
4 (b4)	명절에는 반드시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b5)	한복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6 (b6)	한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다.					
7 (b7)	한복을 입는 것은 생활 문화의 계승과 창조에 도움이 된다.					
8 (b8)	한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9 (b9)	앞으로 나와 내 후손들은 한복을 더 많이 입었으면 좋겠다.					

Ⅲ. 다음은 한복 수업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 주십시오.

1. 귀하는 한복 수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1-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2번 문항으로)

1-1. 귀하는 한복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① 가정에서 ② 중학교 수업시간 ③ 고등학교 재량활동시간 ④기타( )

1-2. 귀하는 누구한테서 한복을 배웠습니까?

① 조부모 ② 부모 ③ 선생님 ④ 주변인 ⑤ 책, TV, 인터넷

1-3. 학교에서 받은 귀하의 한복 수업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①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② 2명 정도의 모델이 나와 대표로 시범학습
③ 모둠별 활동 ④ 동영상이나 실물을 보여주는 방식

1-4. 한복 수업을 배우고 난 뒤 귀하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① 우리옷의 발생된 계기를 알고 있다
② 우리옷의 변천사를 알고 있다
③ 우리옷의 정신적 가치를 알고 있다
④ 우리옷의 구성과 명칭을 알고 있다
⑤ 우리옷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⑥ 배웠지만 알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

1-5. 귀하에게 한복 수업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 한복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업이 설명으로 진행되어서
② 실물로 진행된 수업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워서
③ 용어가 어려워서
④ 우리 옷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⑤ 지루한 내용이라서

1-7. 귀하는 우리한복을 이해하는데 현재의 수업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 한다

② 이해하기에 적절한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③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④ 잘 모르겠다.

2. 귀하는 한복의 명칭을 다 알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조금 안다 ③ 전혀 모른다

3. 귀하는 한복 입는 순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조금 안다 ③ 전혀 모른다

4. 귀하가 한복착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① 치마의 여밈 방향을 알고 있다

② 옷고름을 맬 줄 안다.

③ 바지의 여밈 방향을 알고 있다

④ 대님 매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⑤ 어느 것도 잘 모르겠다

5. 우리한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Ⅳ. 다음은 응답자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성별 : 남 ( ), 여 ( )

2 학교 : 중학교 ( ), 고등학교 ( )

3. 사는 지역 : 도시 ( ), 농·어촌 ( )

4. 귀하의 가족구성은? :

부모, 나 ( ), 조부모, 부모, 나 ( )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나 ( ) 기타 ( )

5. 귀하의 가정생활정도는?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

6. 귀하의 가정 총 월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백만원미만 ② 1백만원이상 ~ 2백만원미만

③ 2백만원이상 ~ 3백만원미만 ④ 3백만원이상 ~ 4백만원미만

⑤ 4백만원이상 ~ 5백만원미만 ⑥ 5백만원이상

7. 귀하의 부모님 직업과 일치하는 난에 ∨표를 해주십시오.

내용		아버지	어머니
전문 · 기술직	교수, 의사,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공학기술자, 연구원, 종교인,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판 매 직	도소매업, 보험, 부동산, 증권거래인, 경매인, 감정인, 점원, 외판원, 소규모가게 주인 등		
생산, 단순노무직	운전사, 금속·복재가공 종사자, 재봉공, 제조공, 용접공, 전기·전자수리공, 인쇄공, 장비조작공, 화물취급인 등		
사무 · 관리직	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관리직, 기업주, 비서 등		
서비스직	요식·숙박업, 조리사, 이·미용사, 자영업자 등		
농 · 어업	농업, 어업, 수산업		
기타	주부, 무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기술•가정교육	학 번	20068122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양정원 한문: 梁政瑗 영문: Yang Jeong Won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354-1번지				
연락처	016-650-4994 E-MAIL:bluegarden79@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중·고등학생들의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조사 영문 : A Study on Secondary and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Hanbok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1 월 일

저작자: 양 정 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